



“장학빌딩 건립에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새 봄을 맞아 10억원 이상 출연자 한자리에

관악출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개교 이후 가장 큰 변화이자 국립대 법인화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대 법인화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대학 스스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성의 확보가 중요한 것은 서울대가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불가피한 필요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학이다. 특히 최근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혁신노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 랭킹 50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라는 거추

서울대학교 법인화

장스런 장애물을 달고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일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문제는 여건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인사·조직·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세계 일류가 되는 길은 대학이나 민간기업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 하에서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경직성과 현실 안주의 유혹은 효율성과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다. 과감한 변화와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법인화다. 자산과 예산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율성을 갖게 되는 법인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비롯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틀과 장치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법인화 물결을 위한 롤 모델이 됨으로써 국내 대학의 비행을 촉발시켜야 한다. 이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법인화의 성공을 위해 교수를 비롯한 교내 모든 이해관계자는 물론 33만 서울대 동문 가족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차時龍는설위원)

지난 4월 18일 동관부조 설치 제작회의에 참석한 10억원 이상 출연 동문들이 관악캠퍼스의 봄기운을 만끽하며 모교 발전을 기원했다. 앞줄 具平會·林光洙·金貞植동문, 가운데줄 洪性大·申明珪·權永昊·朴浩田동문, 뒷줄 金讚淑·吳東英·鄭八道·郭永駟·金鍾燮동문(이날 金相廈·姜信浩·金炯珠·尹世榮·李竣鎔·金殷宗·鄭啓泳·愼昌宰동문은 불참해서 부득이 사진촬영을 못했다.)

지난 4년간 많은 동문들의 온정으로 지어진 장학빌딩이 3월 3일 법적인 준공 절차를 마쳤다. 주변 고층 건물의 공실률이 높은 가운데 18층을 제외한 전 층 임대까지 계약 완료했다.(4월 18일 기준) 이에 따라 임대 수익금도 당초 동문들과 약속한 대로 매년 40억원 이상이 실현돼 모교 지원금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장학빌딩 내 동문 공간으로는 접근이 용이한 2층을

‘만남의 장(가칭 VERITAS홀)’으로 마련하고 부조 설치를 비롯한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이다.

‘만남의 장’에는 장학빌딩 건립 기금 출연자의 동관 명단과 동창회 및 모교의 연혁, 자랑스러운 동문 등이 영구히 기록·보존되며, 동문들이 언제든지 방문해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카페가 운영된다. 2백석 이하의 소규모 모임이나 전시회도 열 수 있도록 다목적 홀로 꾸며진다. (관련기사 3면)

느리나무광장

페이스북 신화로 요즘 가장 각광받는 글로벌CEO로 부상한 마크 주커버그를 다룬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입맛이 켜졌다. 성공을 위해 배신, 협잡, 소송을 불사하는 과장도 씹숯했지만 세계 최고대학이라는 하버드 대 학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학부생 때부터 돈벌이에 혈안이 됐는가 하는 점이 더 거슬린 탓이다.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해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하버드 생들은 하버드를 중퇴하고 세계적인 IT신화를 창조한 빌 게이츠 못지 않은 성공을 좀 더 빨리, 좀 더 어릴때 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찌들어 있는 듯 보였다. 학생들끼리 아이디어를 훔치고 기업을 조직하며 주식을 배분하고 이익금 분배기준을 문서화하며 총장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변호사를 대령해 소송을 일삼는 모습은 숭고한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아니라 난전의 시정잡배들만도 못해 보였다.

최근 만난 한 미국인 학자는 “미국은 끝났다”고 한탄했다. 미국이 ‘결과적인 성공’만을 최고 가치로 삼는 사회가 되면서 타락했다는 것이다. “주커버그 만이 아니라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CEO, 래리 앨리슨 오라클 CEO처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배신 협잡 등등 그야말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들을 성공한 모델로 우러러 보는 사회가 됐다”고 그는 개탄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혼외정사를 했음에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순간 미국을 지켜

슬로시티, 슬로푸드, 슬로피플

蔡 耕 玉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
본보 논설위원



오던 청교도적 도덕률은 붕괴됐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미국인 학자의 개인적 소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위 인터넷, IT혁명 이후 지난 십여 년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노학자의 한탄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미국보다 한술 더 뜨는 배금주의, 결과적 성공에 대한 예찬, 비즈니스적 성공 이외의 다른 가치에 대한 상대적 폄하 등 가치관 혼란과 도덕적 타락의 징후들이 적잖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평균 나이를 산출해보면 고작 18세라고 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20대에 그 많은 걸 이루고자 잠도 못 잘 수밖에 없었겠지만 평균 수명 1백세를 논하며 ‘오래살아 걱정’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찌보면 시간은 차고 넘친다.

특히나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폭넓은 교양과 소양을 쌓아야 할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조금증을 내며 안달복달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슬로시티, 슬로푸드 운동이 한창이다. 인생을 좀 더 길게 보고 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슬로피플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관국이다.

관악시단

그리 단단하지 못한 송곳으로

李 成 馥(불문71-78)
계명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비는 그리 단단하지 못한 송곳으로
땅을 찌으려 내려오다 바닥에 닿기
전에 드러눕는다 자해 공갈단이다
비는 길바닥에 윤활유 들이부은 듯
아스팔트 검은 빛을 더욱 검게 한다
하늘에서 내려올 땐 무명 통치마였던
비는 아스팔트 바닥 위를 번철거리며
흐르다가 하늘을 둘러싸는 여러 다발
땃줄이 된다 아, 오늘은 늙은 하늘이
질퍽하게 생리하는 날 누군가 간밤에
우주의 알집을 건드린 거다 아니다,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알집 두터운 벽이
스스로 깨져 무너져 쏟아지는 것이다

- 시집 '아, 입이 없는 것들'(문학과지성사刊)에서

동문칼럼

대학은 그 나라의 얼굴이요 문화와 역사다. 자기는 자기 얼굴을 잘 모른다. 우리 대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대학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남이 더 잘 알고 우리가 아닌 외국인의 눈에 그 참 모습이 잘 보일지 모른다. 1967년 李用熙교수님의 추천으로 Henry Kissinger교수가 주재하는 3개월간의 Harvard International Seminar에 참가해 미국 대학을 많이 구경했다. 그 후 60년대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IPU(국제의회연맹)의 사무총장회의에도 참석하고, 영국 외무성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도 옥스퍼드대와 런던대학을 가보았다. 물론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2주간 일본 방문 시에도 동경대학을 가보았다.

그 나라의 이름 있는 대학은 그 나라의 얼굴이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며 더욱이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 모든 대학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사회적 제도의 존재 구속적인 일면을 갖고 있었다. 미국 대학은 유럽 대학과 다르고 중부 유럽대학도 북유럽 대학과 다른 점이 있고, 또 영국 대학과 독일대학이 달랐다.

학생선발, 학비, 그리고 학교수업 등 대학운영방식도 그 나라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국립이 좋은 대학도 있고 사립이 좋은 대학도 있다. 영국과 불란서도 세계랭킹이 높은 대학이 있으나 21세기 오늘날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은 미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역사는 오래됐으나 비개방적, 통제적 사회에서는 학문업적이 높은 대학이 드문 반면에 개방적이고도 자유로운 정치사회에서는 이름 높은 대학이 많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주립대학보다 역사가 오래된 사립대학이 학문적 업적이

많은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또 그러한 대학은 동창회의 역할이 컸으며 유니버시티 프렌드의 공헌이 많았다.

우리나라 대학도 많이 변하고 발전했다. 서울대는 더욱 그러하다. 얼마 전에 서울대 공대 趙成俊교수를 따라 오랜만에 관악캠퍼스를 둘러보고 점심을 먹었다. 너무나 변했다. 어찌나 규모가 커지고 연구동 등 시설물이 뽁뽁이 들어서 있는지 빈 공간이 없었다. ‘동송동시대’에 학교를 다닌 내가 보기에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서울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라 우리나라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을 했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21세기 문명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발전과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禹 炳 奎
(정치51-55)前국회의원
국제미래사회연구소 대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나 수출역량은 세계에서 10위권을 넘나 보고 있으며, 올림픽의 금메달 수도 그러한 정도까지 갔다. 그런데도 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사람도 없고, 아직 서울대마저도 세계의 대학 순위 중 50위권에도 제대로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을 끌어 모으는데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연구업적을 창조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학은 그 나라의 얼굴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 내부에서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나라의 보호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대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대학 내부의 자율성이 보다 높아지고 인사와 운영 면에서 개방성과 경쟁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다. 서울대는 세계에서 명성이 높은 일류대학의 운영 시스템을 대폭 도입, 현재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은 우리나라 다른 대학의 변화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진운을 위해서도 큰 과제요, 숙제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朴 薦 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장학기금 10억원 이상 출연자 2층 ‘만남의 장’에 부조 설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4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장학빌딩 건립기금 10억원 이상 출연자를 초청해 동관부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빌딩이 지난 3월 3일 관계기관의 준공인가를 받았고, 현재 지하실과 18층을 제외한 전 층의 임대 계약을 완료한 상태”라며 “장

학빌딩 건립에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당초 기금을 모금할 때 10억원 이상 출연하신 동문의 동관 부조를 장학빌딩 내 각 층에 나눠 설치하기로 말씀드린 바 있으나 각 층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 계신 동문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며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은 각 층에 부조를 설치할 경우 관리의 어려움이 많고 동문들에게 홍보 효과가 적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2

층 만남의 장(가칭 VERITAS홀)에 소액출연 동문들과 함께 설치하는데 찬성했다. 한편 이날 미대동창회 金鳳九(조소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

회장이 참석해 부조 제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밑그림이 될 사진을 촬영했다. 부조 제작은 김희장을 비롯해 인하대 白顯鉦(조소58-65)명예교수, 오호라보 조형연구소 李容俊(조소65-69)대표 등 유명 동문 조각가가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具平會고문, 林光洙회장, 金貞植·郭永駟·金讚淑·洪性大·朴浩田·金鍾燮·鄭八道부회장, 관악회 申明珪·權永錫이사, 金讚淑부회장의 부군 KAIST 吳東英(조선항공54임)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법대 鄭宗燮학장, 廉仁燮운영위원장, 金慶漢회장, 申濟南이사장, 故李大源동문 부인, 吳然天총장

법대 동창미전

‘문화의 르네상스’시대 열어

“기성 작가들의 그룹전에 결코 손색없다.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모두 예술 세계에 입문해야할 분들이다.” 지난 4월 17~25일 서울 서초동 한전갤러리에서 열린 법대 동창미전 장립전(法門藝展)에 대한 한국전임미술가협회 申濟南이사장의 소감이다. 오프닝에 참석한 법대동창회 金慶漢회장은 “과연 법대 동문들의 재능은 어디에까지 미치는지 스스로 경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모교 吳然天총장도 “이곳은 지성과 감성의 융합현장”이라며 “수준 높은 작품에 기성작가들이 긴장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裴基玟(법학50-54)동문 등 17명이 그림, 李載厚(법학58-62)前회장 등 4명이 사진, 文澤尙(법학50-54)동문 등 9명이 서예 작품을 출품했다. 홍익대 총장을 역임한 故 李恒寧(법학40졸)동문의 목각서에 대련 2점, 대한민국 예술원장을 지낸 故 李大源(법학45졸)동문의 회화 ‘농원’도 함께 전시됐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廉仁燮(형정63-67)운영위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다시 한 번 법대 동문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 동문들이 매년 발굴돼 전시회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耳順테니스회

金慶洛·韓仁教동문 우승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으로 구성된 耳順테니스회(회장 韓榮成)는 지난 4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63회 춘계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韓榮成회장 등 회원 20여 명을 비롯해 모교 吳然天총장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

국대사가 참석했으며, 스티븐스 대사는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우승 金慶洛(건축58-64)·韓仁教(의학66-72)동문, 준우승 金燦祚(농화학49-54)·李昌健(전기공학49-54)동문 ▲B조: 우승 成旭基(경제53-57)·洪明熹(법학55-59)동문, 준우승 金潤澤(법학50-58)·權寧宅(화학교육56-60)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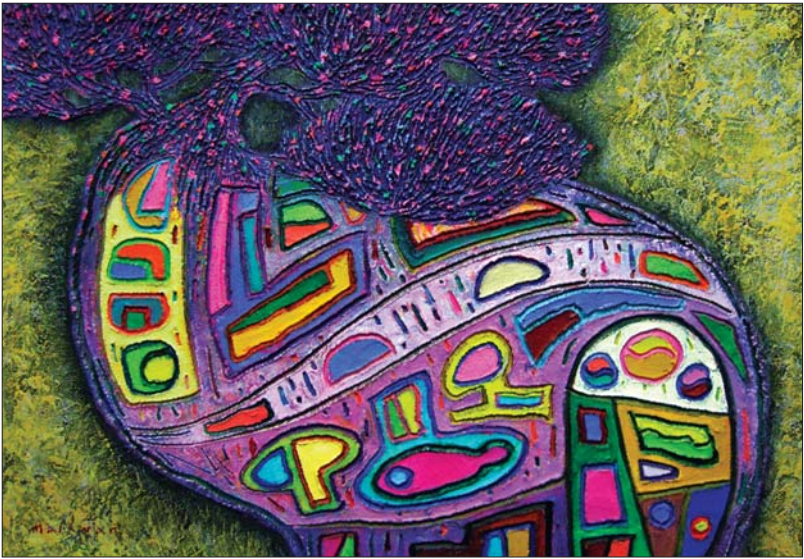
의대동창회

테니스로 우의 다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昰)는 지난 4월 24일 모교 연건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제33회 회원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朴容昰회장, 모교 任廷基학장 등 6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모교 金鎮永명예교수가 심판위원장을 맡아 각 부별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머부: 우승 金相雨(의학48-55)·柳世英(의학56-62)동문, 2위 金鎮永(의학50-56)동문·유신혜 재학생 ▲여성부: 우승 김신후·최지혜 재학생, 2위 박주현(의학01-07)·위지혜(의학01-07)동문 ▲참피인부: 우승 金滿植(의학74-80)·金容載(의학74-80)동문, 2위 趙孟紀(의학63-69)·李奉宰(의학72-79)동문 ▲일반부: 우승 高英超(의학71-77)·羅相勳(의학90-96)동문, 2위 金鍾和(의학63-69)·李赫杓(의학82-88)동문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나무’, mixed media on canvas, 72.7x50cm, 2011

安末煥作

〈작가약력〉

- ▲76~81년 모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및 초대전 30회
- ▲국제전 및 단체전 3백회
- ▲독일 갈슈르헤국제아트페어(Karlsruhe)
- ▲2006~2010 코엑스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 ▲프랑스 ST-ART 2009 (Strasbourg)
- ▲한국미술협회·훈올회·탄천현대작가회·갑자전 회원
- ▲경원대 미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과 출강

文昌克 前관언회장에 본회서 공로패 수여



林光洙회장, 文昌克 前관언회장

본회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도림에서 관악언론인회 文昌克(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前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

했다. 文동문은 지난 2년간 제5대 관악언론인회장을 맡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신입 기자와 여기자들의 모임 등을 활성화시키며 조직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辛鉉雄부회장, 관악언론인회 裴仁俊회장, 모교 朱鍾南정직자문단장 등이 참석했다.

치대·치대원동창회

학생회 임원과 간담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秉燦)는 지난 4월 4일 모

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에서 학생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金秉燦회장을 비롯해 역대 동창회장과 학생회 강동호 회장, 김길용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대동창회

관악산 친목등산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4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卞柱仙회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관악산을 오르며 우의를 다졌다. (南)



禹敬子 前회장(右)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생활대동창회

崔明珍회장 선출·장학금 수여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禹敬子)는 지난 4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회 졸업생인 朱貞一동문을 비롯해 모교 李順媛·李基春 명예교수, 權薰貞학장, 여성가족부 白喜英장관 등 1백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으로 崔明珍(가정교육65-69)동문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孟惠烈(가정64-68)동문을 선임했다. 2년간 동창회를 이끌어갈 신임崔회장은 “동기들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교에 힘이 되는 동창회, 동문들에게는 따뜻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면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참조)

禹敬子 前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각 학과동창회가 조직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문들이 모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내년에는 더 큰 장소에서 3백명 이상이 모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禹 前회장은 지난 2년 임기동안 1천만원의 동창회 기금과 2천6백만원의 모교 발전기금을 유치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의류학과 등 4개 학과 장학생에게 각각 2백만원씩 총 8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부 특강시간에 중앙대 의류학과 鄭興淑(가정교육59-63)명예교수가 ‘영화와 문화 속의 의상스타일-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복식의 변천과정’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千健熙(식품영양81-86)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3부 친교시간에는 각 기수별 대표들의 노래자랑과 모교 비바 남성중창단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를 위해 禹敬子 前회장, 崔明珍회장, 모교 權薰貞학장, 池根億·金蘭都교수, 鄭興淑·李基春·金外淑·韓東玲동문 등이 푸짐한 경품을 잔조했다.



춘천지부동창회

지역 출신 후배에 장학금 전달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4월 12일 춘천시내 한

화학부동창회

‘세계 화학의 해’ 홍보에 동참

화학부동창회(회장 金珞中)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화학회장을 맡고 있는 金珞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화학의 해’인 동시에 국제화학회협회(IACS) 창립 1백주년이자, 퀴리부인의 노벨상 수상 1백주년이기도 해 그 의미는 더욱 크다”며 “우리 동문들이 홍보에 앞장서고 9월 개최

예정인 ‘화학EXPO’ 등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창회는 김정은(화학06-11)동문에게 최우수 졸업상을 수여했으며 재학생 김민범(4년)군과 김석순(2년)양에게 우등상을 시상했다.

동창회는 올해 봄·가을 등산대회, 회보 발간(2회), 장학금 지원, 회원 경조사, 흠커밍데이 행사 등에 4천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대동창회

金鳳九회장 재선임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鳳九)는 지난 4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소담마루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金鳳九(조소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회장을 재선임했다.

金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총회가 이뤄져 아쉬운 점이 많다”며 “임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



朴敏予동문, 金鳳九회장, 金美惠총무

다”고 말했다.

총회 후 동대문미술협회장으로 취임한 朴敏予(회화62-66 경희대 중앙도서관장)동문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기동문회

한강유람선서 총회

전기동문회(회장 張世昌)는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유람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文熙晟 前회장, 金正浩부회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한강 야경과 라이브 음악 공연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전기동문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총회와 흠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3천여 명의 동문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HPM동창회

張燦基회장 추대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李相昊)는 지난 4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해동재단 張燦基(8기)대표를 선출했다.

張회장은 HPM동창회 수석부회장, 한양로타리 총무를 역임했으며, 인천과 경기도 포천에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지난해 동창회 활동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을 논의했다. 동창회는 사회 각 분야의 유명 인사를 초청해 정기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12월 중 동문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 행사를 열기로 했다.

산업공학과동창회

具滋公회장 선출



산업공학과동창회(회장 李炳龍)는 지난 3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중원대 에너지지원공학부 具滋公(산업공학71-75)학부장(사진)을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 동국대 趙星九(산업공학72-76)교수와 만나FNC 李廣世(산업공학73-77)대표, 총무에 金鍾徹(산업공학87-91)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具회장은 모교 졸업 후 美일리노이대(아바나-삼페인)에서 석사학위, 텍사스대(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2001년까지 KAIST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토양환경학회 초대회장, 환경부 에코스타사업 예비사업단장, GS건설 환경사업본부 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南)

농화학과동창회

재학생들과 관악산 등반

농화학과동창회(회장 李廷浩)는 지난 4월 6일 관악산에서 제7회 동문회장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동문과 재학생간의 친교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재학생 70여 명, 동문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상에 가장 많이 오른 2학년 학생들은 동문회장 상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

李貞順총무는 “모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친교가 적어 서먹한 편인데 동창회가 주관하는 등반대회로 벽을 허물 수 있어 매우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동창회는 1968년 창립돼 1천6백여 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겸 흠커밍데이, 장학금 수여식, 골프대회 등의 사업을 펼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벚들골에서 동문 가족들을 초청해 정기총회 겸 흠커밍데이 행사를 갖는다.

AMPFRI동창회

임원워크숍 가져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文允奉)는 지난 4월 29~30일 강원도 비발디파크에서 임원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文允奉회장, 宋明儀·朴熙熙수석부회장을 비롯해 7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해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졌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4월 26일 27기 원우회 주관으로 서울 서초

로얄프라자에서 28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ACPMP동창회

친목등산대회 개최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徐紱郁)는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5월 1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토해양부 鄭鍾煥(SGS 3기)장관을 초청해 제64차 조찬모임을 가졌다.

정외과동창회

“암투병 金在穆동문 도와주세요”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李圭煌)는 최근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인 金在穆(정치81-85) 前문화일보 정치부장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말 민주당 孫鶴圭(정치65-73)대표, 청와대 李秉官(정치76-81)인문특보를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모금 운동에 동참해 1천여 만원을 전달했으며, 계속해서 성금을 모금 중이다.

金동문은 지난 1월초 서울 아산 병원에서 ‘췌장암이 폐암으로 전

이됐다’는 판정을 받은 뒤 충북 제천 한방치유센터에서 투병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金동문의 모친도 대장암을 앓고 있다는 것. 한 달 약값과 요양비용만 5백만원이 들어간다.

모금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일보 全榮基(정치80-84)편집국장은 “金동문이 어머니 생전에 자식의 죽음을 보게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오랜 기자생활과 3년 정도의 정치 활동으로 金

동문의 재산이 많지 않다”며 “동창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후배의 투병의지와 감사생활은 더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金동문은 문화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다 정치권에 입문해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孫鶴圭동문)의 대변인을 지냈다. 안산에서 정치활동을 해왔으며 환경단체인 에버그린21 대표를 맡고 있다. <도움주실 곳 : 우리은행 계좌번호 052-033625-12-101, 예금주 전영기(010-5214-2423)>

한편 동창회는 지난 4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에서 청와대 李鍾和국제경제보좌관을 초청해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코리아 전략’이란 주제로 정례조찬회를 개최했다.

AFB동창회

조찬세미나 열어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4월 5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金榮煥국회의원을 연사로 초빙해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라’는 주제로 제6회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崔炳五회장, 모교 생활과학대학 權薰貞학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한편 세미나 후 가진 임원회의에서 5월 2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장배 골프대회를 9월로, 6월 4일 예정이었던 춘계등산대회를 5월 28일로 변경했다.



영문과동창회

양동마을로 문화탐방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柳津)는 지난 4월 16~17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춘계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첫 날에는 柳津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풍산 안강사업장을 방문해 방위산업 시찰과 발칸포 시범 사격을 관람했다. 이후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을 둘러보았으며, 저녁에는 신라문화원을 방문해 등불을 들고 점성대를 거쳐 안압지에 이르는 ‘달빛여행’을 체험하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불국사와 경주박물관

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柳津회장, 모교 柳斗善(영문76-80)학과장, 金明中(영문84-88)동문 등이 시사와 기념품을 협찬했다.

한편 동창회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동아일보 孔鍾植(영문85-92)차장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4월 25일 현재 柳회장을 비롯해 裨恩(영문65-69)·廉惠禎(영문72-76)·朴悌淳(영문82-88)·禹美英(영문86-91)·이은희(영문86-90)동문 등이 온정을 보내왔다. 孔동문은 수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도움주실 곳 : 국민은행 계좌번호 870-21-0371688, 예금주 공종식>



동송클럽

1박2일 순천만 여행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4월 15~16일 전북 순천만으로 춘계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는 金乃元(사학65-69)·金榮珣(중문65-69)·金永珠(독문65-69)·金定姬(영문65-69)·朴明珍(불문65-69)·朴惠蘭(독문65-69)·夫貞愛(사학65-70)·李敬愛(독문65-69)·趙喜子(영문65-69)·崔一玉(미학65-69)동문을 비롯해 39명이 함께 했다.

여행 첫 날에는 李文喜(독문65

-69)동문의 안내에 따라 곡성 오지리에서 송정까지 약 4.5km의 섬진강 구비길을 걸은 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관람했다. 둘째 날에는 李根洙(사학65-72)동문의 설명을 들으며 낙안읍성과 송광사를 둘러봤다.

崔一玉동문은 홈페이지(www.dongsoong65.net) 게시판에 “동송클럽의 여행은 언제나 다채롭고 질서정연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조금은 뻑뻑한 듯하면서도 여유로운 일정,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이어지는 해박한 설명과 겸손한 미소들. 나는 이런 동송클럽의 일원이자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남겼다. <南>

5·6월
행사 캘린더

5월 23일(월) 오전 11시

• AMPFRI동창회 골프대회

경기 용인 88CC

(문의 : 742-8863)

5월 25일(수) 오후 6시30분

• 법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

(문의 : 735-3614)

5월 28일(토) 오전 10시

• 농화학과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

(문의 : 총무 010-7531-5050)

6월 3일(금) 오후 6시30분

• 상대 63동기회 정기총회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문의 : 회장 010-3760-3153)

6월 10일(금) 오후 6시30분

• 동송클럽 정기포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

(문의 : 총무 011-412-0757)

6월 10일(금) 오후 7시30분

• ACAD동창회 국정포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문의 : 871-8951)

6월 14일(화) 오후 6시30분

• ACPMP동창회 관악음악회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882-2623)

생활대동창회 崔明珍회장

지난 4월 2일 생활과학대학동창회 회장에 崔明珍(가정교육65-69)동문이 선출됐다. 禹敬子 前회장은崔회장이 손수 써서 보낸 편지를 보고 “확실한 동창회장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崔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동문 1백80명에게 ‘수제편지’를 보냈다. 부군 鄭亨根(법학 64-68)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부인이 동창회장이 돼 가문의 영광이지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켜본 소감을 전했다. 4월 18일 서울 압구정동 한일관에서崔회장을 만났다.

－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모교 학장님을 만나 동창회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또 의류학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전공별로 임원들을 만나기도 했고

요. 직업이 동창회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56년 가정교육과 선배님들이 주축이 돼 ‘목련회’란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했어요. 매년 4월 총회와 가을 흠커밍데이 행사로 친목을 다지고 있고, 전공별로 주관하는 공개특강을



－ 운영 계획은.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동창회 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40세 이상의 동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도와줄 동문, 대외적으로 동창회를 빛낸 동문,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동문을 찾아 동창회 업무를 함께 할 생각이에요. 또 직능별 모임 조직도 독려할

의 기반인 모교와 동창회에 조금이나마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준 남편과 귀한 기회를 준 동기,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1947년 서울 출생인崔회장은 경기여고를 나와 모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 10여년 간 서울 행당여중·한강여중 교사, 부산 중앙여고 교사, 관동대 강사로 활동했다. 부군 鄭亨根동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정치 조력자로 지역구 살림을 도왔다.崔회장은 정치 현장에서 10여년간 남편을 보좌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감동시키는 법을 몸으로 익혔다. 남편과 사이에 3남매를 뒀다. 아들(鄭導鉉 물리93입), 만사위(徐奉揆 사법89-94), 둘째 사위(金辰浩 의학93-04)가 동문이다.

“직능별 모임 독려…참여 유도”

마련해 동문들의 다양한 지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죠. 장학금 지원과 무료로 조기 대어도 하고 있고요.”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노년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며 제 인생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치대·치대원동창회 金秉燦회장
(김병찬치과의원 원장)

지난 2월 23일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장에 취임한 金秉燦(치의학69-75)치과의원장을 3월 17일 서울 압구정역 부근 병원에서 만났다. 30년 된 그의 병원은 주인을 닮아 소박하고 푸근했다. 별도의 집무실이 없어 환자가 대기하는 소파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다. 金회장은 출출하지 않냐며 초코파이부터 건넸다.

－ 취임사에서 모교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모교는 전문대학원에서 다시 학부 체제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학제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관악캠퍼스에 병원 신축 계획을 놓고 논의 중에 있어



화를 위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역점 사업은.

“회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제부와 정보통신부를 신설했어요. 동창회 사무실에서 환자와 관련된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ROTC동문회 姜實根회장
(원일커피아 대표)

서 후보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올해는 69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후보생 지원자도 두 명 있습니다.”

－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사업이 유명한데.

“우리 동문회가 타 동문회와 차별화되는 사업이죠. 지난 여름방학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죠. 교수동문회 회원과 후보생들을 멘토와 강사로 꾸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2006년부터 각 분야의 영웅들을 주제로 ‘리더십 퀘린더’를 제작해 큰



지난 3월 21일 총회에서 ROTC동문회 회장단이 젊은 세대로 교체됐다. 회장은 6년간 사무총장으로 활동해온 원일커피아 姜實根(자원공학70-74)대표가 맡았다.

신임 姜회장은 梁在鉉·金鍾燮 前회장을 보필하며 ROTC동문회가 친목단체를

“모교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

요. 대학, 병원, 동창회가 삼위일체가 될 때 모교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매주 수요일 모교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 타 단과대학동창회보다 활성화가 덜된 느낌입니다.

“치과의사들의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교 출신들이 협회의 중추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된 면이 있죠. 근래 들어 동문간 소통해야 할 문제가 많아지면서 동창회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재정은 어떤가요.

“연락 가능한 4천5백여 명의 동문 가운데 1천2백여 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계세요. 연회비가 5만원인데 조금 부족해 지난 총회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장학금 증액을 비롯해 모임 활성화

법적 문제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모교에 졸업생을 위한 보수 교육도 요청했습니다. 임원진을 90학번대 동문으로 확대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1951년 부산 출생인 金회장은 부산고를 나와 모교에 입학했다. 학창시절 보이스카웃 활동, 대학연합동아리인 ‘생명경외클럽’을 통해 봉사의 삶을 배웠다. 1978년 해군 소령으로 예편 후 모교에서 보철학 석사, 일본 쇼와(昭和)대학에서 교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철학동문회장을 역임했으며, 평양이고향인 부친의 영향으로 남북의료재단 공동대표, 남북치의학교류협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치과의사 되자’는 직업관을 갖고 치과의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비 납부율 끌어올리겠다”

탈피해 봉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는데 일조해왔다. 지난 4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ROTC동문회 사무실에서 姜회장을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

－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金鍾燮선배께서 1년을 더 하시기로 했는데, 타 대학 동문회와 발을 맞춰야 한다고 해서 부회장도 거치지 않은 제가 덜컥 맡게 됐습니다. 전임 임원들에 비해 지명도도 낮아 부담이 큼니다만 오랫동안 동창회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만여 명의 ROTCian들이 뭉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후보생이 많이 줄었죠.

“1기가 5백명이었는데, 최근에는 2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장교 복무기간이 사병보다 길고, 취업 등의 이유로 학교에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ROTC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동문회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죠.”

－ 남은 과제라면.

“동창회의 가장 큰 친목 사업인 흠커밍데이(격년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보 발송 회원이 6천명 정도 되는데,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이 적습니다. 1천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요.”

1952년 부산 출생인 姜회장은 경남고를 나와 재수를 해서 모교에 들어왔다. 태권도 유단자(4단)로 모교 ROTC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특전사 장교로 복무했다. 당시 전국에서 6명의 후보생이 특전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나머지 5명은 모두 체육과 출신이었다고 한다. 군 복무 후 일본계 해운회사인 K라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상무이사로 퇴임했다. 중국에서 전기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귀국 후 2007년부터 설계도면 인쇄업체인 원일커피아 대표를 맡고 있다. (南)

화제의 동문

‘서울대 된장’ 빛나는 디비이식품 姜炳錫대표



을 뿐더러 농촌이 발전하려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넘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모교 재학시절에는 친구들과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느라 소위 말하는 이

념동아리에 가입해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즐겁고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姜동문은 회고했다. 그는 모교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그때의 좋은 추억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그의 꿈은 전통문화를 잘 가꾸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다. 일지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농촌을 버리지 않게 하면서도 된장이라는 식품을 테마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익이 생긴다면 꼭 모교에 환원해 식품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는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난해에 쓴 재료에 대한 유혹을 못 이기고 미국산 콩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콩을 사지 않고 버티고 있죠. 포기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그럼 이걸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폐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서울대 명성에 먹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에게는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당분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가 좀 더 버텨주기를, 끝끝내 미국산 콩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진짜 먹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기를 희망해 본다.

〈智〉

“아직까지 수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디비이식품 姜炳錫(식품공학70-74)대표가 답답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적잖이 당황스럽기만 한데 정작 본인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든 재료는 질 좋은 국내산이어야 하며 방부제 등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 ‘단기적인 매출을 위해 값싼 재료로 따로 제작해야 하는 세일행사용 상품은 만들지 않는다.’ 姜동문이 고수하는 경영 원칙들이다. 일명 ‘서울대 된장’으로 불리는 상품을 만드는데 ‘돈 때문에’ 모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할 수 없지 않느냐며 姜동문은 오히려 반문했다.

국내산 최고급 원료만 고집

姜동문이 만드는 ‘맑은손맛 된장’은 원래 모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에서 연구·개발한 ‘서울대 된장’을 모태로 한 제품이다. 모교 농과대학 식품공학과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된장 제조공장을 만들어 매년 일정량을 실험생산하고, 교직원들에게 소량씩 분양해 왔다.

그런데 2003년 수원에 있던 농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옮기게 되면서 식품공장 이전을 놓고 식품공학과 내에 논란이 벌어졌다. 관악캠퍼스가 좁아서 식품공장을 새로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공장을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격론 끝에 공장을 관악캠퍼스로 옮기고, 姜동문이 식품공장의 이전과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공장장을 맡게 됐다. “우리 학교에서 만들던 된장인데 캠퍼스 이전 문제 때문에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와서 보니 학생들이 실습하는 수준으로는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없었다. “모교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식품이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우리 서울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보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학교 내에서 만드는 수준으로는 상품화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그는 2004년 생산과 판매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디비이식품이라는 회사를 창립했고, ‘맑은손맛 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3년 전에는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과주에 공장을 새로 짓고 모든 시설을 옮겨왔다. 그가 새로운 공장 부지로 과주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다. 식품공장은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과주의 임진강 변은 서울에 인접해있으면서도 물과 공기가 맑고, ‘장단콩’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모교에서 생산하던 된장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버티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고 그는 고백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된장보다 염도가 낮아 엄마들이 아기 이유식에 사용할 만큼 상품에 대한 평은 좋았지만 판매량은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았다. 유명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서 접할 수가 없기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았다.

백화점 판매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백화점에서 수없이 실시하는 관측행사를 위해 별도의 상품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건 ‘합법적인 사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1년 6개월 간의 입점 기간동안 그는 단 한번도 할인행사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과감히 백화점 판매를 포기했다. 지금은 회사 홈페이지(www.dbekorea.com)와 모교 생활협동조합의 매점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가격이 일반 된장제품에 비해 두 배 정도

“모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농대서 개발한 된장 모태로 상품출시

일염보다 7~10배 정도 비싸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여기에 공장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수익이 없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됐다. 제품보관실은 항상 6℃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조절장치를 풀가동해야 한다. “지난겨울은 유난히 길었잖아요. 기름값도 비싼데 한 달 난방비만 1백만원이 넘게 들었죠.”

“수익 나면 모교 지원할 계획”

서울시립대 원예과 1학년 때 선배들 따라 학생운동에 참가했다가 학교를 쉬게 된 姜동문은 재수를 하고 모교 식품공학과에 진학했다. 朴正熙대통령 시절 내려진 휴교령으로 어차피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

“부패 없는 나라가 잘 살고, 잘 사는 나라에 부패 없다”

동문을 찾아서

梁 建 감사원장



취임 두 달여를 맞은 梁 建(행정66-70)감사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은 고즈넉했다.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렸고 평소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서울 가회동길은 한산했다. 공기 맑은 언덕배기에 위치한 감사원은 화강암 돌벽으로 굳건한 인상을 풍겼다. 안내를 나온 공보관에게 “감사원이 높은데 자리잡은 이유가 감시를 딱바로 잘 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웃음만 지었다.

우리나라 사람조차 우리를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느끼는 비리, 부패 정도는 더욱 크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22위로 하위권이다. 감사원의 역할이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

梁감사원장은 교육 분야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춘지 걱정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에게 무슨 도덕성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는 게 그가 교육 분야 감사에 초점을 둔 이유다.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칼을 뽑아든 梁동문의 포부를 들어 봤다.

대 답 : 朴時龍(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논설위원

— 경치가 참 좋습니다.

“서울 시내에 이런 사무실이 없을 것 같아요. 비벨 때도 창 밖을 내다보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요. 참 좋습니다.”

—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월 11일이니까 아직 두 달이 채 안됐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웃음)”

— 업무 파악은….

“기본적인 것은 대충 파악을 했어요. 차드시죠.”

— 은퇴할 시기에 관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전혀 뜻밖의 일이었어요. ‘세상일에는 우연한 요소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들이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힘든 자리를 맡았다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대부분의 동기들이 여유롭게 쉬고 있고, 짐사람도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공직 경험을 못한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교수로 끝내는 게 좋지, 또 하나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세상일이라는 게 뭐… (웃음)”

—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지않습니까.

“예,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난 번 국민권익위원장을 할 때 미진했던 부패방지 업무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었어요. 감사원이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고 훨씬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서 수락했죠.”

— 취임하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리 일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구나’ 하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을 경험했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원은 일반적인 정부 부처와 다른 면이 있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대해 갖는 기대는 각별하다.’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실감합니다. 또 감사원 직원들의 뛰어난 업무 역량에 감탄도 나옵니다. 감사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상 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느껴지고요.”

— 그동안 감사원장은 법조계나 경제관료 출신이 많았죠. 원장님은 학계 출신이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주는 강점이라면.

“학자는 지식인 그룹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지식인은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사회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크죠. 특히 인문사회 분야 학자들은 문제를 볼 때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넓고 멀리 보려고 하죠. 그런 점이 전문 관료 출신보다는 나은 점이겠죠. 단점은 실무적인 경험이 적다는 것이고요.

제가 헌법학을 주로 연구했어요. 헌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판단하는 일이지요. 모든 헌법적 판단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의 청렴 수준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감사원 업무의 핵심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감사업무의 동향을 보면 전통적인 회계감사나 비리, 직무감찰을 뛰어넘어 정책에 대한 감사로까지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직사회의 청렴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부패가 없는 나라가 잘 살고, 잘 사는 나라에 부패가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흔히 3대 비리라고 해서 권력·토착·교육 비리를 이야기하죠. 고질적인 3대 부패에

을 인식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죠. 걸릴 확률이 크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방위산업을 포함한 국방 분야와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생각입니다. 국가의 첫째 존립 이유가 국방 아닙니까. 최근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방산 비리가 심각하죠. 북한을 압도하는 선진적인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자주포를 비롯해 여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계의 비리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 평균 수준보다 못한 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청렴 수준이 높아야 할 교육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벌써 학부모들이 춘지 걱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 걱정하는 모습을 아이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래서는 청렴의식이 생기기 어렵죠. 그런 면에서 교육비리 척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창의적 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니까 시험 평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려면 사지선다형 시험에서 벗어난 서술형 시험도 정착돼야 하는데, 주관식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 부모들이 많습니다. 결국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가능해야 교육 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 국방, 교육, 지자체 등 몇몇 분야가 성역으로 치부되고, 성역으로 보호되고 지원될수록 비리도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청렴 문화를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도덕성 교육이 강화돼야 합니다. 우리 교육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동시에 올바른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교육



“교육·국방 분야 청렴도 반드시 개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데, 감사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학 공부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또 헌법학 자체가 한정된 문제가 아닌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고 감사 업무도 마찬가지라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죠.”

— 어디에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에 두고 있

관해서는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에서 청렴한 국가로 뽑히는 싱가포르, 홍콩이 단기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가능했던 것도 강한 응징 때문입니다.

강력한 처벌, 제재라고 하면 강한 물리적 처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처벌의 확실성’

리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교육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1987년 한국공법학회상, 2002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았다.

기본권에 대해선 최고의 권위자로 뽑히며 ‘헌법연구’,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 ‘미국헌법과 대외문제’, ‘법사회학’,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개혁 이 제부터’, ‘새로운 헌법 필요인가’ 등의 책을 저술했다.

2008년 3월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기관의 기초를 다졌다. 외유내강한 스타일로 추진력과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 梁원장은

194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직전 한 살배기 때 모친 등에 업혀 월남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고와 모교 법과대학 졸업 후 미텍사스대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받은 뒤 모교로 돌아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송실대, 한양대 법대 등 대학 강단에서 35년간 헌법과 법사회학을 가르쳐 왔다. ‘법은 반드시 현실 사회와 꾸준히 관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1990년대에는 시민단체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

교수 시절부터 현실 문제에 관심 갖고 시민단체 활동

☑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 3세부터 도덕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비리, 부패 사건이 드러나고 적발되는 것은 제보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발 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부 고발에 대해서는 배신이라고 여기는 의식이 강하죠. 언젠가 타임즈의 송년호 ‘올해의 인물’에 내부 고발자 여성 3명이 표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영웅으로 본단 말이지요. 이런 내부 고발 문화를 어떻게 기르느냐,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TI)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백80개국 중 39위 수준입니다. 늘 40위권에 있다가 재작년부터 39위입니다. OECD 30개국 중에는 22위 수준이니 하위권이지요. 아시아에서만 보면 싱가포르가 5위 내외이고 홍콩이 조금 아래, 일본이 10위권입니다.”

－ 피감 기관과 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 6만1천여 개에 이릅니다. 중요한 기관만 따져도 5백80개 정도고요. 중앙 행정기관이 49개, 지자체가 2백여 개, 중요 공공기관도 2백여 개가 됩니다. 직원은 1천35명이고요. 국정 전반기 감사 대상이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지원 인력을 빼면 8~9백명이 실제 감사인력인데 이 인원으로 조금 박찬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다 보니, 감사 인력을 늘려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더 필요하죠.”

－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독립성이 잘 안 지켜졌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직무상 독립성은 전반적으로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사건에서 그렇지 못하지 않았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은 나름대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독립성 문제는 감사원 모든 직원들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죠. 저도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직무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전문적인 실력을 키우라고 주문합니다. 국방 분야를 제대로 감사하려면 국방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더라도 모르니까 감사가 어려웠죠.

또 하나는 피감자의 억울한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육, 국방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계속 드라이브를 걸다보면 반감, 저항도 나올 수 있죠. 어떤 건에 대해서 절차적으로나 방법 면에서 지나치게 되면 본말이 전도돼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것을 특히 주의하자고 강조합니다. 과정상 작은 실수가 큰 일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자



35년간 대학서 헌법·법사회학 강의 경기중·고 시절 야구선수로 활약

고요.”

－ 감사가 지나치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게 된다는 지적과 실적위주 감사로 흘러서 피감 기관들이 힘들다는 불만도 있었죠.

“그런 지적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평가방법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적 건수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평가방법으로 개선해야죠.”

－ 화제를 돌려보죠. 헌법학 권위자이기도 하신데 헌법 헌법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에 오기 전에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감사원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이 의무입니다. 개헌이 정치적 문제가 돼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개인적인 견해는 원장이 되기 전 이미 여러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梁원장은 2006년 한양대 교수 시절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 선거를 하고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돼 빈번한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중임제는 조선 대통령이 재선에 한 번 몰두할 여려가 있고 재선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5년 단임제보다는 낫다”고 말한 바 있다.

－ 요즘 로스쿨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스쿨 도입을 가장 앞서 주장한 교수 중 한 명이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이 변호사 합격을 위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하게 되면 로스쿨 제도는 실패한 것이죠.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면 시험 걱정 없이 3년 동안 정말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깊고 넓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 합격률을 졸업생의 75%로 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그것보다 내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가 덕이란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그 말이 하나의 강박관념 비슷하게 각인돼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덕목은 ‘균형’입니다. 학문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혹시 삶에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전기나 자서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金九의 ‘백범일지’, 張俊河의 ‘돌베개’, 金山の ‘아리랑’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 살아오면서 보람된 순간과 힘든 일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힘든 일을 겪지 못하고 순탄하게 살아왔어요. 그게 제 한계죠. 힘든 일도 겪어봐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람이라기보다는 기뻐던 순간이 1987년 6월 시민항쟁에 성공했을 때예요. 시민항쟁이 일어나기 1~2년 전, 긴박한 시절에 신문 칼럼을 써왔기 때문에 좀 남다른 느낌이었죠. 뭐랄까, 사회적인 의미의 절정같은 것을 느꼈죠.”

－ 여가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세요.

“시간 나면 스포츠, 특히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 갑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선수를 했어요. 정식 등록된 선수였습니다. 포지션은 3루수였고요.”

－ 노년화가 화두입니다. 노년기를 대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것은 없어요. 강의를 계속했다면 전공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련 책을 쓸 계획이었죠.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면 그 책을 쓰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관심은 있었지만 미뤄뒀던 것들이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예요. 우주, 생명 이런데 대한 호기심이 무척 강했고, 지금도 늘 속제로 갖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해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요.”

－ 확실히 학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혹시 가족 중에 동문이 계신가요.

“형님(梁精康 의학58-62)이 동문이세요. 치대를 나오셔서 지금도 치과 일을 하고 계세요. 형님 외에는 여동생, 아내, 딸 두 명 모두 여대를 졸업했어요.”

－ 최근 총동창회가 마포에 장학빌딩을 완공하고 서울대 뿌리 찾기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소 동창회에 대한 생각과 조언을 들려주시지요.

“부실한 동창회원이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웃음) 동창회를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학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지만, 능력 있는 학생 중에 여건이 안 돼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이 동창회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정리=金南柱기자)

면 시험 준비기관으로 몰락하는 것이죠. 최저 75% 이상은 돼야 합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시, 행시에 대한 미련은 없으셨나요.

“대학 다닐 때 소위 운동권에서 활동했습니다. 법대 내의 서클이었죠. 선배들이 1학년 때부터 ‘사시, 행시 하는 것은 출세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도 실제 사회 변혁 운동을 꿈꿨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학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 모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없었나요.

“학자들에게 서울대 교수가 된다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지만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립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쪽 해왔는데, 학자로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울대에 대한 욕심 없이 충실하게 학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 만약에 학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대학 시절에는 신문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 좌우명을 들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늘 사람은 덕이

법인 설립준비위원 15명 선임

정관 작성·이사 선임 등 업무 추진

모교 소식

모교가 지난 3월 31일 ‘국립대

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5명으로 학외위원에 李洪九(법학53입)前국무총리, CJ그룹 孫京植(법학57-61 본회 부

회장)회장, 성균관대 徐正燾(의학61-67)이사장, 安炳禹(행정66-70)前총주대 총장, 宋光洙(법학67-71)前검찰총장, 고려대 徐之文(신대원69입)교수, 휴맥스 卞大圭(제어계측79-83)대표, 미국 다트머스대 金 墉총장 등 8명을 선임했으며, 학내위원은 모교 吳然天(정치70-74)총장, 朴明珍(불문65-69)교육부

총장, 李昇鍾(화학공학70-74)연구부총장, 李峻圭(물리67-71)평의회 부의장, 盧泰敦(사학67-71)국사학과 교수, 文龍麟(교육67-71)교육학과 교수, 王圭彰(의학73-79)의학과 교수 등이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목적과 직무, 구성, 임기 등을 규정했으며, 앞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작성, 최초의 이사 및 감사 선임, 법인 설립 등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향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준비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劉 進회장, 테드 립만 주한캐나다 대사, 吳然天총장, 鄭雲燦 前국무총리, 柳判童학장이 스코필드 박사의 유품인 지팡이를 잡고 있다.

수의과대학

스코필드 박사 추모식

수의과대학(학장 柳判童)과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회장 劉進)가 공동으로 지난 4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제9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특별히 이날 캐나다 대사관이 유족의 뜻에 따라 지난 10년간 보존한 스코필드 박사의 1백92점의 유품을 모교에 기증했다. 또 서울 관악구내 중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국립현충원 스코필드 박사 묘역 참배와 스코필드 박사의 교육철학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돼 있는 스코필드 박사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매우 특별한 세계인”이라고 소개한 뒤 “국적과 인종, 피부색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인류애와 배려 정신을 가지신 박사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사실은 서울대의 영광이고 한국인의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모교 총장시절 스코필드동우회를 조직해 현재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鄭雲燦 前국무총리는 장학금을 수여한 뒤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고귀한 뜻을 전달받아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리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프랭크 스코필드(한국명 石虎弼) 박사는 1919년 3·1운동을 미국, 캐나다 등에 적극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훈장과 건국공로훈장(국민장)을 받았다.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리고자 조직된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1월 정식 법인으로 출범해 장학금 사업 및 모교 재학생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인식개선 위한 체험

모교는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19~20일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과 학생회관 주변에

서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퀴즈대회, 재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장애인체험 및 보조공학 체험, 사진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재학생 위주로 진행된 예전 행사와 달리 이번 행사에는 처음으로 보직교수들이 직접 참여해 안대 쓰고 지팡이를 사용해 보행하기, 목발 짚고 이동하기, 점자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법과대학

劉基天박사 유품전

법과대학(학장 鄭宗燮)은 劉基天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俞 焄)과 공동으로 4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瑞岩법학관 2층 법대 역사관에서 ‘月松 劉基天의 법학세계’를 주제로 劉基天박사 유품전시회를 개최한다.

鄭학장은 행사를 준비한 崔鍾庫교수와 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법학의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학문과 실천으로 모범이 되신 선생님의 자취를 돌아보는 전시회는 모교 교수들과 학생은 물론 우리나라 학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劉박사의 예일대 박사논문 ‘한국문화와 형사책임’의 단행본 출판기념식을 겸했으며 전시회에서는 강원대 金萬松(행정50-55) 명예교수의 최근 기증자료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법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람객이 사전 예약할 경우 안내를 제공한다. 〈문의 : 880-7578〉

故 劉基天(1915~1998)박사는 1943년 동경제대 법학부 졸업 후 1946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교무처장, 제9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음악대학

주민 위한 화요음악회

음악대학(학장 金永旭)은 모교 학생처(처장 李鶴來)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를 개최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과 학내 구성원을 위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밖에도 음대는 기악과 피아노의 일부 수업을 학내 구성원과 일반인이 청강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문의 : 880-9320〉

故 朴婉緒동문 유족 인문대에 13억 쾌척



최근 故 朴婉緒(국문50입)동문(사진) 유족이 모교 인문대 학술기금으로 13억원을 쾌척했다.

유족은 차동문의 현금 재산 13억원 전액을 조용히 출연하고 싶다며 “어머니는 생전에 대학에 기부할 뜻을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 자신께서 모교 덕을 많이 본 사람이라며 평소 하신 말씀을 생각해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교는 유족 의사에 따라 별도의 약정식은 갖지 않기로 했다.

故 차동문은 1950년 문리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으나 6·25전쟁으로 중퇴 이후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다. 1970년 여성동아 여류장편 소설 공모에 당선돼 왕성한 작품활동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모교는 소설가로서 문예예술계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차동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지난 1월 22일 담낭암으로 별세했다. 평소에도 차동문은 유니세프 정기 후원자와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기부와 후원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했다.

모교는 차동문의 이름을 따서 기금을 조성하고 유족과 상의해 기부금을 교수 채용이나 연구생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가족 가운데 장녀(扈源淑 국어교육72-76·수필가)와 3녀(扈源慶 의학76-82·모교 교수)가 동문이다.

모교 암병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모교 암병원(병원장 盧東榮)은 지난 4월 9~10일 모교 연건캠퍼스 소아임상 제1·2강의실에서 ‘Implementing Innovative & Personalized Cancer Treatment’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암병원 개원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분자 프로파일링과 진단 ▲점단 영상 기술 ▲암치료의 발전 ▲위암에 대한 임상강의 시리즈 ▲암치료의 개인화 ▲중개연구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해외 유명 학자와 국내 연구자들의 참여로 최첨단 암진단과 치료에 대한 20여 편의 논문발표와 패널 토론회가 진행됐다.

盧병원장은 “다양한 암질환 치료를 위한 중개연구와 임상시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암정복을 위한 국제적 공동연구와 글로벌 임상시험을 주도적으로 시

행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선제분 故 朴世鉉회장 병원 후원금 1억원 출연

지난 4월 20일 대선제분 朴世鉉회장 유가족이 모교 병원(병원장 丁憲原)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대선제분 선대 회장인 故 朴世鉉회장은 생전에 모교 병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이에 보답하고 싶다며 기부 의사가 담긴 유언을 남겼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故 차회장의 아들인 수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朴乃會원장이 행사에 참여해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모교 암병원 건립기금과 알레르기내과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榮〉

식을 줄 모르는 모교 발전기금 출연 열기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 현동장학회 宋在洪이사장, 吳然天총장, 故 蔡虎錫동문 부인 김양식 여사와 아들 체제한 씨

宋在洪이사장 4억 내보

지난 4월 12일 현동장학회 宋在洪(농화학83-88 홍보산업 대표) 이사장이 모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宋이사장은 지난 2008년 발전기금에 19억원 출연을 약정하고 ‘宋在洪장학기금’을 설립해 지금까지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기부했다.

발전기금은 ‘宋在洪장학기금’을 설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재학생 중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학장시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어렵게 학비를 마련해 졸업한 宋이사장은 후배들을 돕기 위해 현동장학회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기부 사업을 해오고 있다.

故 蔡虎錫동문 유족 2억

故 蔡虎錫(전기공학48-53 前협진정밀공업 회장)동문 유족이 2억 원을 출연했다.

지난 4월 12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蔡동문의 부인 김양식 한인문화연구원장과 아들 체제한 씨가 참석했다.

蔡동문 가족은 힘든 환경에서도 고학으로 학업을 지속해왔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고자 장학기금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전기금은 ‘蔡虎錫장학기금’을 설립하고 모교 공대 전기공학부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徐辰源은행장 어린이센터에 1억 기부



지난 3월 31일 신한은행(행장 徐辰源 AFP 5기·사진)이 모교 어린이다문화교육센터 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3월 개소한 모교 생활과학대학 어린이다문화교육센터는 모교 외국인 교수와 교직원 자녀 및 관악구 지역 어린이를 위한 교육 기관이다.

신한은행은 학생회관 증축기금, 복지지원기금, 관악사 복지관 시설기금 등 최근까지 모교에 1백30억원을 쾌척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공대에 기계 기증

공과대학(학장 姜泰晋)은 지난 4월 5일 관악캠퍼스 공대 학장실에서 두산인프라코어(대표 金用盛 무역80-84)와 공작기계 기증 및 공작실 정비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공대와 산학 연구 협력을 위해 기존 공작실을 정비하고 부족한 공작기계 2대를 기증하는 등 총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작실은 정비 완



姜泰晋학장·金用盛대표

료 후 ‘두산인프라코어 공작실’로 명명되며, 이 공작실은 기계 공작과 관련된 설계·조립·가공·측정 및 평가가 단일 공간에서 가능해 향후 모교 기계공학 교육과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약식 후 ‘CEO 특강’에서 金대표는 “기업의 대학 지원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런 연구결과가 다시 기업의 경쟁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이상적인 관계”라며 기업과 대학의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했다.

공과대학은 두산인프라코어와 차량에너지 통합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측은 협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榮〉

재학생의 소리

“수화 통해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요”



朴 珍 勇
(기계항공10입)
손말사랑 동아리 회장

흔히 수화라고 하면 청각장애인의 언어, 글자를 손으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화는 그 나름의 어휘와 문법을 가진 완전한 하나의 언어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만의 언어가 아닌,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건청인들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비록 능숙하게 수화로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청각장애인들이 만났을 때 인사말과 간단한 대화만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손말사랑에서는 멀게만 느껴지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수화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방학 중에는 선릉역 청각장애 복지회 청음화관에서 ‘사랑의 수화교실’을 수강합니다. 수업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기초·중급·고급반 등으로 나뉘어 개설되며 이번 해에도 손말사랑 동아리원들은 기초반과 중급반을 수강할 계획입니다.

학기 중에는 수화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 일주일에 한번씩 동아리방 또는 학교 강의실을 빌려 수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에도 총 10회의 수화교실이 열릴 계획이며 현재 매주 월요일마다 20여 명의 동아리원들이 함께 수화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화교실이 끝날 때에는 수료식에서 선보일 수화노래, 시 낭송, 구연동화, 연극 등을 준비합니다.

다른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매

년 1학기에는 장터를 열고 있으며 2학기에는 일일호프 등의 수익행사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와 수익을 위한 것이기보다 장터와 일일호프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제까지 연습한 수화를 응용해 노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봉사동아리로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관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난곡사랑방-푸른주말학교’의 교사활동을 했습니다.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잠시 벗어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직접 교감하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정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화·봉사 동아리 손말사랑이 되겠습니다.

콩트 릴레이

어느 봄날에

鄭 英 勳(국문91-96)

경상대 교수·문학평론가



점심을 먹은 후 가벼운 차림을 하고 산을 오른다. 산이라고는 해도 높이가 2백 미터가 채 되지 않는다. 연구실 가까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사십 분이면 충분하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는다.

임용돼 이곳 진주로 내려온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전에는 여길 오를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다. 최근 들어 자주 체하고 그럴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무래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 일삼아 산행을 시작했는데, 산길을 걷는 재미가 제법 쏴쏴하다. 비 온 뒤라 그런지 오늘은 더 운치가 있다.

“

최근 들어 자주 체하고
그럴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무래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
일삼아 산행을 시작했는데,
산길을 걷는 재미가 제법 쏴쏴하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시내 쪽을 바라본다.
도시의 정경이 아름답다.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지.

”

날이 풀리고 처음 오는 비였다. 예년 같으면 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거라며 다들 반겼을 텐데, 올해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과 원전 사고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방사능 수치가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은 아니라고 했지만 별로 믿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쉬는 곳도 있다 했다. 팔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잠깐 고민을 했더랬다. 혹 학교에서 하루 쉰다는 문자가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도 달랑 우산 하나 들려서 학교를 보내기가 뭣해서 출근하는 차로 아이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다. 여전히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비가 그치고 나니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덜한 것 같다.

나에게는 이번 지진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내가 도덕적 감성이 유달리 풍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친구가 가족이랑 도쿄에 살고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다.

지진이 있고 하루쯤 지나 그곳 사정을 몰았더니 난리 났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걱정하는 사람 생각해서 빈말로라도 괜찮다고 할 법한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 모양이었다. 그나마 가족은 안전하다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당장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 듯인데, 별탈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수컷이 짝을 부르는 소리인 듯싶다. 가만히 들어 보니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부르는 게 아니다. 소리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 계속 같은 소리만 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한 마디를 부른 후 곧바로 다른 마디를 부르는가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하면 휴지부를 좀 길게 가져가기도 한다.

제 댄에는 최선을 다해 부르는 노래일 게다.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린다. 리듬이며 박자가 조금 전과는 다른 것이, 아마도 암컷이 수컷의 노래에 화답을 하는 모양이다. 아름답다. 내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진다.

사람들 뭉치 내려온다.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산책로를 따라 여기까지 이른 모양이다. 느긋함이 몸에 밴 표정들이다. 문득 나도 저런 얼굴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진주로 내려오면서 운전이 거칠어졌다. 2년 전, 진주에 막 내려왔을 때만 해도 차로 삼십 분 거리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서울에서는 한 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예사였으니까. 진주로 내려오기 직전에는 매일 두 시간 가까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강의를 다녔다. 그러니 삼십 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 외곽에 집을 마련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진주 생활에 익

숙해지면서 학교까지 가는 게 점점 멀게 느껴지는 거였다. 이제는 왜 그렇게 멀리서 다니느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뜻일 거다. 운전이 거칠어진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심리적 거리를 줄이려는 심산.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진주에서 살았다. 몸과 마음이 자라는 시기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인데도 이곳 생활이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다. 웬지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는 느낌일랄까.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이십 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 서울 생활이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거기 맞는 어떤 리듬 같은 것이 생겼던가 보다. 그게 하도 자연스러워 거기서 멀리 떠나온 이곳에서도 여전히 나는 옛날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게 아닐지.

따지고 보면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몸이었으니 어떻게 서울에 붙어 살 수 있었지만, 결혼하고 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대부분을 경기도민으로 살았다. 학교까지 지하철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 주위의 도시들, 그러니까 부천, 부평, 의왕이 내가 살았던 곳이다.

부평이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해 있음에도 그곳 사람들이 부평에 산다고 하지 인천

이사를 막 끝내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요량으로 음식점 전단을 보고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 몇 군데 더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그곳이 바로 서울이라는 생각에 지역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연결이 됐다. 내가 전화를 걸었던 곳은 모두 서울 쪽의 가게였던 거다.

다음 날 근처를 둘러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부천에 있는 가게들에는 하나같이 032라는 지역번호가 붙어 있는 반면 서울 쪽 가게들에는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적혀 있는 게 아닌가. 書生의 눈에는 이게 허투루 보이지가 않았다. 거기에는 이른바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위상학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지역번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숫자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 요는 동일자들 사이에서는 지역번호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지역번호와 함께 가게 전화번호를 붙여 놓은 부천 쪽 상인들은 스스로를 타자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적어도 서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를 볼 줄 안다는 뜻이다.

그에 반해 서울 상인들에게는 이런 감각이 아예 없다. 두 지역이 맞닿아 있기에, 자신을 타자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장소에 살고 있는데도 자기를 타자화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 서울은 어떤 경우에도 타자화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게 아닐까.

시간이 웬만큼 지나고 다시 가게들을 둘러보았을 때는 상황이 꽤 많이 바뀌어 있었다. 서울 지역 가게들에도 02라는 지역번호를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 거다. 모르고는 해도 지금쯤은 02가 붙은 번호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된 데는 핸드폰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려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지역번호를 눌러야 한다.

이건 서울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허용되는 게 아니다. 일본의 비평가인 가라타니 고진은 그의 책 '탐구'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가 타국 생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핸드폰이 자신을 동일자의 바깥에 놓도록 강제했다고 말해 보면 어떨까. 동일자의 바깥에 서는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핸드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만큼은 핸드폰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새 정상에 다다랐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시내 쪽을 바라본다. 도시의 정경이 아름답다.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지. 길을 되짚어 학교로 내려간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였던가? 구불구불 길게 난 길을 따라 자전거가 움직이고 그 걸 롱테이크로 잡은 엔딩 장면이었다. 그렇게 얼마쯤 가다 영화가 끝이 나고 자막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다. 자전거는 자꾸만 넘어지고, 그때는 그 장면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렇게 느릿느릿 움직이고 싶다. 누군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면 몇 번씩 하품을 해야 할 만큼 지루하게 느껴지도록.

동 정

수 상

▲柳宅馨(법학49-53 변호사)= 지난 4월 25일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林溶圭(전기공학52-56 한국원자력아카데미 이사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진흥분야) 수훈.

▲朴孿實(의학54-60 前보건사회부 장관·박산부인과 원장)= 지난 4월 16일 한독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가 제정한 제2회 한독여의사지도자상 수상.

▲朴贊雄(의학54-60 모교 약리학 교실 명예교수)= 지난 4월 12일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가 수여하는 제29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저술

부문) 수상.
▲金允植(국어교육55-59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지난 5월 2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0회 수당상(인문사회

부문) 수상.
▲池堤根(의학56-62 모교 병리학 교실 명예교수)= 지난 4월 7일 보건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奉鍾憲(전문기상60-66 前기상청장·한국기상전문인협회 고문)= 지난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

백장 수훈.
▲李弘熙(화학공학62-66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명예교수)= 지난 5월 2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0회 수당상(응용

과학부문) 수상.
▲李本守(응용화학64-68 인하대 총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화공분야) 수훈.

▲姜玟鎬(전기공학65-69 KASIT 교수)=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정보분

야) 수훈.
▲金斗哲(전자공학66-70 고등과학원장)= 지난 5월 2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0회 수당상(기초과학

부문) 수상.
▲柳台桓(기계공학66-70 한국전기연구원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에너지분

야) 수훈.
▲李東根(건축66-70 성균관대 교수)=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기초분야) 수상.

▲朴庸秀(금속공학67-71 연세대 교수)=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기계분야) 수훈.

▲柳聖殷(화학68-72 한국화학연구원 단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진흥분야) 수훈.

▲金道漢(전자공학68-72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기초분야) 수훈.

▲柳子孝(불어교육68-75 국제펜클럽 부이사장)= 지난 4월 30일 제16회 현대불교문학상(시조부문) 수상.

▲李孝錫(의학74졸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 지난 3월 30일 가송재단과 대학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제3회 가송의학상 수상.

▲趙煥益(정치69-7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지난 4월 20일 한국외국어대 개교 57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 수상.

▲金智英(식품영양69-73 경희대 교수)=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진흥분야) 수훈.

▲李秉基(전자공학70-74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 지난 4월 22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통신학회로부터 정보통신대상

수상.
▲蘇憲永(화학교육70-7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

비장(기초분야) 수훈.
▲金鎮太(법학71-75 대구지방법원 청정 검사장)= 지난 4월 25일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황조근정훈장 수훈.

▲金槓浩(자원공학73-8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년직연구원)= 지

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에너지분야) 수상.

▲宋錫政(화학74-79 코오롱인더스트리 중앙기술원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기계분야) 수훈.

▲林仁皓(물리교육74-78 인천대 교수)=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진흥분야) 수훈.

▲李炯圭(약학74-7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화공분야) 수상.

▲李哲義(물리75-79 고려대 교수)= 지난 4월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물리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수상.

▲鄭七熙(물리75-79 삼성전자 부사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정보분야) 수훈.

▲潘碩鎬(조선공학75-79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운송연구부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에너지분야) 수훈.

▲李鶴來(임산가공75-79 모교 산림과학부 교수·학생처장)= 지난 4월 14일 제9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可山賞 수상.

▲李蓮姬(미생물76-80 서울여대 교수)=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기초분야) 수상.

▲張榮植(조선공학80졸 현대중공업 상무)=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기계분야) 수상.

▲崔石鎬(물리77-81 경희대 교수)= 지난 4월 14일 나노구조를 광전자 등 산업분야에 응용한 공로로 제87회 한국물리학회 학

술상 수상.
▲崔昌運(의학78-84 한국원자력 의학원 방사선 연구소장)=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화공분

야) 수상.
▲宋惠眞(국악79-83 숙명여대 교수)= 지난 4월 11일 국립국악원

에서 국악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제4회 관재국악상 수상.

▲李尙默(해양81-85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지난 4월 16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상 대상(장애인 분야) 수상.

▲李相喜(미생물81-88 명지대 교수)=지난 5월 11일 한국교육공제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여하는 제7회 한국교육대상(대학부문) 수상.

▲申寬浩(경제82-86 고려대 교수)=지난 4월 1일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연구활동을 인정받아 제41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鄭秉峻(국사83-87 이화여대 교수)=지난 4월 14일 月峰 韓基岳선생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36회 월봉저작상 수상.

▲張明宇(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최근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 수상.

▲許 民(대학원83-86 전남대 교수)=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기초분야) 수훈.

▲方珉昊(국문84-89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4월 30일 제16회 현대불교문학상(평론부문) 수상.

▲邊純千(무기재료85-8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실장)=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진흥분야) 수상.

▲孫 勳(토목공학88-92 KAIST 부교수)=지난 4월초 美퍼드대에서 전 세계 저명한 석학을 초빙하기 위해 제정한 상(Edward M. Curtis Visiting Professorship)의 최초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8월부터 2학기 동안 동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함. 또 5월초 KAIST에서 40대 교수에게 처음으로 수여하는 'KAIST지정 석좌교수'에 임명.

▲許 燁(AIP 41기 한국전력공사 건설본부장)=지난 4월 8일 제46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훈.

인사

▲權 誠(법학60-66 언론중재위원장)=지난 4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총회에서 위원장에 재선임.

▲鄭正佶(행정61-65 前대통령실장·모교 행대원 명예교수)=지난 4월 21일 임기 3년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제15대 원장에 선임.

▲安國正(사학63-70 동아일보 방송설립추진위원장·본보 논설위원)=지난 4월 7일 종합편성 TV 채널A 부회장에 선임.

▲金春玉(회화64-68 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최근 2011년 마을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장에 선임.

▲孫鶴圭(정치65-73 민주당 대표)=지난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에 당선.

▲崔炳寅(의학68-74 모교 영상의학교실 교수)=지난 3월 3~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영상의학학회 학술대회에서 명예 회원에 추대.

▲金春錫(사회69-73 여주군수)=지난 4월 12일 광역경제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金 塾(사회70-77 前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前국가정보원 제1차장)=지난 4월 21일 駐유엔 대사에 임명.

▲朴良浩(지리71-75 국토연구원장)=지난 4월 12일 광역경제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朴忠學(의학71-78 단국대 교수)=지난 3월 22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

▲安炳燦(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1일 문화를 장안하고 기획하는 컨설팅그룹 '기분좋은 QX'의 출판편집고문에 선임. 또 소셜뉴스 위키트리 데스크 '안병찬기자 49년차' 운영자로 논평, 칼럼 및 영상저널 집필.

▲裴是花(건축72-76 경원대 교수)=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李珉和(전자공학72-76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지난 3월 28일 출범한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선임.

▲李 健(수학73-77 前한국조사연구학회·서울시립대 교수)=

지난 4월 8일 임기 4년의 서울시립대 총장에 선임.

▲全在萬(외교74-78 前駐광저우총영사·駐중국 대사관 공사)=지난 4월 7일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임명.

▲李庸承(성악75-82 서해대 교수·전 주성악아카데미 회장)=지난 4월 11일 임기 4년의 서해대 제10대 총장에 선출.

▲姜哲遠(외교76-81 前YTN 미디어환경변화대응 TF팀장)=최근 YTN 라디오 주주총회에서 상무이사에 선임.

▲李海矜(사회복지76-80 前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지난 4월 18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에 취임.

▲裴善永(경제78-82 前기획재정

부 거시경제정책자문위원·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지난 4월 12일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선임.

▲鄭基漢(수학교육78-82 경기도 신흥중 교장)=최근 동두천·양주 중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재선임.

▲白雲守(환대원78-80 미래E&D 대표)=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崔莫重(건축79-83 모교 환경대학원 교수)=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金善美(조경80-84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디자인처장)=지난 4월 20일 제2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李 濬(무역80-84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지난 4월 15일 한국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회장에 선출.
▲金台鎬(농업교육80-85 前경상남도 도지사)=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에 당선.

▲崔文洵(대학원84졸 前MBC 사장·前국회의원)=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당선.

▲崔昌植(한대원82-84 前서울시 행정2부시장·성균관대 석좌초빙교수)=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에 당선.

▲洪永萬(한대원83-87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진단장)= 지난 4월 8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

▲朴恩實(산업미술84-88 추계예술대 교수)= 지난 4월 12일 광역경제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安玄珪(국악93-97 국악작곡가)= 지난 3월 2일 이화여대 음악대학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교수에 임용.

▲金宣廷(AMP 43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난 4월 19일 제9회 광주비엔날레(2012년 9월 7일~11월 11일) 공동예술감독에 선임.

▲鄭俊明(AMP 58기 前삼성재판장·前삼성인력개발원 사장)= 지난 4월 1일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에 취임.

▲申智閔(AMP 66기 현성랜드·세흥허브 대표)= 지난 4월 14일 한국자유총연맹 제2대 중앙여성회장에 취임.

▲林寅彬(AMP 70기 前육군 참모차장·국방대 총장)= 지난 4월 10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임명.

▲咸基浩(AIP 39기 한국HP 기업부문 영업총괄 부사장)= 지난 5월 1일 한국HP 사장 겸 기업부문 대표에 선임.

▲權海玉(ACAD 16기 前국회의원·한국자유총연맹 고문)= 지난 4월 6일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에 임명.

▲金昌煥(ACAD 27기 前국회의원)= 지난 4월 18일 대한민국헌정회 운영위원회 의장에 재선출.

▲薛勇洙(ACAD 53기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 지난 4월 4일 (사)통일교육협회의 총회에 제6기 상임의장에 재선임.

▲姜東遠(AIP 8기 前서울시 강남구의원)= 지난 4월 27일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 강남구의원에 당선.

▲金明龍(AIC 12기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지난 4월 11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에 임명.

▲金泰漢(BCP 4기 삼성전자 신사업팀 부사장)= 지난 4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

행 사

▲朴宇熙(경제54-58 세종대 총장·세종연구원장)= 지난 4월 22일 서울 세종 호텔에서 기획재정부 尹增鉉 장관을 초청해 '최근 경제여건 및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세종포럼 개최.

▲柳宗夏(정치55-59 대한적십자사 총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관훈동 우림화랑에서 일본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미술전 개최.

▲俞東濬(잡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晶月 羅蕙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 지난 4월 23일 수원시 행궁동 주민센터에서 제14회 晶月 羅蕙錫 바로 알기 심포지엄 개최.

▲金載姪(회화56-60 서울미협 회원·서양화가)= 지난 4월 24~28일 영국 카디프시 Thornhill Church Centre에서 'Easter Thanksgiving 2011'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지난 4월 18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21C 새 세대 뉴세마을운동 추진방향

세미나 개최. 또 22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의 날' 첫 기념식 개최.

▲安秉勳(행정57-61 도서출판기파랑 대표·徐載弼기념회 이사장·본회 부회장)= 지난 4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徐載弼선생의 얼굴과 업적을 새긴 동판 헌정식 개최.

▲具本茂(응용미술60-66 미술과 비평 상임위원)=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전 개최.

▲金炳日(사학63-67 前기획예산처 장관·한국국학진흥원장)= 지난 4월 20일 경북 안동시 운흥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준공식 개최.

▲金東鎭(기악63-67 모교 강사·클라리네스트)= 오는 5월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에서 바수니스트 郭貞善(기악90-94 서울시향 수석)동문, 오보이스트 李倫定(기악90-94 경희대 전임강사)동문 등과 함께 세종 목관합주 앙상블 정기연주회 개최.

▲鄭東俊(한대원65-6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서조지회장)= 지난 4월 20일 중국 백수현의 창힐사관 사당에서 열린 中華漢字節 선포식에 참석.

▲金九煥(무역67-71 한국금융연수원장)= 지난 4월 20일 서울 삼청동 연수원 별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 파생상품 구조변화의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文昌克(정치68-72 중앙일보 대기자·한국정치평론학회 회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4월 22일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연세대 국학연구원(원장 白永瑞 동양사학72-81)과 공동으로 '동서양 군주 교육과 정치'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章洙弘(응용미술69-76 前모교미대 학장)= 지난 4월 1~16일 서울 신사동 갤러리 LVS에서 '흙과 나무사이'를 주제로 전시회 개최.

▲金錫俊(토목공학69-7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지난 4월 15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제328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李鍾淑(성악69-73 성결대 교수·메조소프라노)= 지난 5월 13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님이 오시는지'를 주제로 독창회 개최.

▲李珉柱(회화76-80 한국화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중국 상하이 시양지양(香江) 화랑에서 '극의 공명-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개인전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기자협회 창립 회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4월 13~18일 네 팔을 방문해 제15회 만해대상(평화부문) 수상자에 선정된 마이티네팔재단 아누라다 코이랄라 대표와 네팔 의회당 수실 코이랄라 대표, 잘라나스 카날 총리 등과 인터뷰.

▲崔眞珠(회화81-85 경북대 강사)= 지난 5월 11~17일 서울 안국동 갤러리 송아당에서 '그리움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아홉 번째 개인전 개최.

▲許 埴(회화81-85 전남대 교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 신문로2가 성곡미술관에서 '억압된 일탈'을 주제로 개인전 개최.

▲金鍾久(ACAD 47기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의회 상근부회장)= 지난 4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회 개인정보보

▲曹秀美(성악81입 성악가)= 지난 5월 6~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세계 무대 데뷔 25주년 기념 바로크음악회 개최.

▲陳銀淑(작곡81-85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 지난 4월 20일(세종체임버홀), 22일(서울 예술의전당) 두 차례에 걸쳐 '아르스 노바' 공연 개최.

▲李相建(의학83-87 모교 신경과학교실 교수·에필리아 대표)= 지난 4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뇌전증(간질) 환우 및 가족들을 위해 제7회 에필리아 시민강좌 개최.

▲황인정(기악95-99 백석예술대 겸임교수)= 지난 5월 8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첼리스트 김시내(기악99-03)동문 등과 함께 앙상블 파르템(Partem) 창단 연주회 개최.

▲李智倫(기악97-01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지난 5월 15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브람스, 하이든 등의 작품으로 귀국 비올라 독주회 개최.

▲金鍾久(ACAD 47기 한국개인정보보호협회의회 상근부회장)= 지난 4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회 개인정보보

삼가 명복을 빕니다

- ▲禹容海(상학45-51 前쌍용 회장)=4월 10일 별세(86세)
- ▲金明煥(의학46-51 前국립경향병원장)=4월 21일 별세(84세)
- ▲申長享(법학47-51 前유정상사 사장)=4월 15일 별세(86세)
- ▲趙瑛淑(화학52-57 前정화여중 교사)=4월 29일 별세(79세)
- ▲金鍾祿(지리교육52-56 前국토정책연구원)=4월 21일 별세(79세)
- ▲徐昌輝(교육52-56 前소피아엔틱 사장)=4월 14일 별세(78세)
- ▲趙英淑(법학57졸 주부)=4월 20일 별세(77세)
- ▲崔在護(법학53입 前대법원 대법관)=4월 13일 별세(77세)
- ▲安元榮(임학55-59 모교 명예교수)=4월 11일 별세(75세)
- ▲郭承榮(상학55-59 美하위대 교수)=4월 20일 별세(74세)
- ▲李道卿(농학56-63 부평문화재단 이사장)=4월 14일 별세(75세)
- ▲申鐵享(전자공학57-63 안세 회장)=4월 27일 별세(73세)
- ▲朴信一(영문59-63 前문공부 해외공보관장)=4월 12일 별세(71세)
- ▲崔星洛(법학60-69 한몽교류진흥협회 이사장)=4월 13일 별세(72세)
- ▲朴 豊(법학64-68 前도시가스協 상근부회장)=4월 24일 별세(69세)
- ▲王鎮亨(사회교육72-76 서울시교육청 총무부장)=4월 19일 별세(58세)
- ▲朴泰寬(공업화학80졸 KAIST 교수)=4월 10일 별세(54세)
- ▲林寅奎(AMP 1기 풍림에너지 회장)=4월 9일 별세(89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청춘만세

－ 權彞赫 지음



여섯 번째 에세이집.

지난해 서거 45주기를 맞은 朴壽根화백의 ‘박수근 전시회’를 시작으로 한일병합 1백주년 기념 ‘붓길 역사의 길 전시회’, 다큐 ‘아미존의 눈물’, 국립창극단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安重根 서거 1백주년 기념극 ‘나는 너다’, 영화 ‘창살없는 감옥’,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포화속으로’ 등에 대한 소회에서 權동문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늠할 수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청년보다 더한 지적 욕구와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인연을 맺었던 인물을 추억하며 古下 宋鎮禹선생, 湖巖 李秉喆회장에게 존경을 보내고,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 金貞培원장, 方之日목사, 연세대 梁在謨 명예교수, 李洪九 前국무총리, 본회 林光洙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圭圭常 명예회장, 모교 趙完圭 前총장 등의 삶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했다. (신광출판사刊·값20,000원)

■ 존엄사Ⅱ

－ 金建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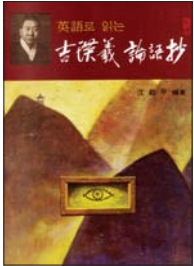
단국대의 대 학장·부속병원장의 무 부 총 장, 대한결핵협회 회장 등을 지낸 金建烈 (의 학 53-59)동문이 오랜 임상 경험과 ‘노년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스러운 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한 책을 펴냈다.

金동문은 이 책에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존엄사 논쟁의 실마리를 찾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존엄사 수용·자연사 및 사전의료지시서의 실용적 측면에 대해 접근한다.

이 책은 ‘존엄사’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하고, 선진 외국의 풍부한 사례와 최근 국내외 사례까지 소개하고 있다. (최신의학사刊·값25,000원)

■ 英語로 읽는

吉瑛義 論語抄
－ 沈載甲 편저



을 발췌한 논어초와 James Legge 前옥스퍼드대 교수의 영문번역을 함께 담아 출간했다.

沈동문은 일생을 애국애족운동으로 보낸 吉瑛義선생께서 우리 국민이 논어를 열심히 읽는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교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책에는 吉瑛義선생의 약력을 비롯해 좌우명 및 휘호 40여 편과 吉瑛義선생 기념사업회 연혁 등이 담겨있다. (비매품)

■ 한국 보수세력 연구(중보판)

－ 南時旭 지음



문화일보 사장을 지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南時旭 (정 치 54-58)석좌교수가 지난 2005년 12월

펴낸 ‘한국 보수세력 연구’의 증보판. 한국 보수세력의 인맥과 사상 및 그동안의 공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李明博정부 출범 3년간의 실적을 중간평가하고 2012년 정권교체를 앞둔 보수세력이 당면한 도전을 분석한 글 등을 덧붙였다.

지난 5년간 국내외 상황전개를 분석한 글과 함께 이 책에는 초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해방 직후의 반탁학연을 비롯한 우파학생단체 등 몇 가지 상황이 추가 또는 보충돼 있다. 표지 안쪽의 한국 주요 정치사상 및 정당계보 그림도 보완했다. (청미디어刊·값35,000원)

■ 세계와 함께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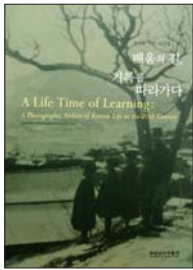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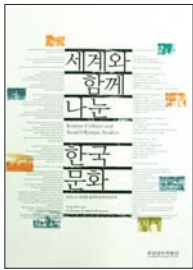
한국문화

■ 배움의 길,

기록을 따라가다

－ 姜信杓 지음

인제대 문화인류학과 姜信杓(사회55-59)명예교수가 평생 동안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을 2009년 8월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가운데 1988년 서울을 립박을 계기로 자신이 관여하게 된 올림픽 문화화술운동에 대한



‘세계와...’에는 姜동문이 주도한 서울올림픽 문화축전 기본계획, 1987년 제1회 국제올림픽 문화학술대회 기획과정에 얹힌 이야기들과 그가 쓴 올림픽 관련 논문들이 담겨있다.

‘배움의 길...’에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그가 모교 사회학과 후배인 金鳳榮동문과 1962년 4월 23일 백년가약을 하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 등으로 신혼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한 여행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 사진집은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립민속박물관刊·비매품)

■ 하루 또 하루

－ 金光圭 지음



1975년 계간 문예지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한 후 열린 태도로 생활 세계 속의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일상 시’의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온 한양대 金光圭(독문60-64)명예교수의 열 번째 시집.

김수영문학상뿐 아니라, 대산문학상, 이산문학상 등을 받으면서 30여 년간 꾸준히 시 창작에 몰두해온 金동문이 2007년 여름부터 4년 가까이 생에 대한 밀착한 언어로 빚어내 발표해온 투명한 시 67편을 모았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인상뿐 아니라, 사람들과 맺어온 관계에 대한 절실한 반성을 풀어내고 있다. 별세한 지인들에게 보내는 추모 시도 실었다. (문학과지성사刊·값7,000원)

■ 자연에서 찾은 성공비법

－ 高景淳 지음

부산외국어대 경영학과 高景淳(사회교육61-65)명예교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기계발과 혁신의 요소를 자연 속에서 찾아 풀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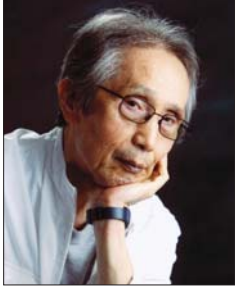
高동문은 자연을 거스르고 차별하는 ‘인간우월주의’에 빠진 인간들

연구보고서를 정리한 ‘세계와 함께 나는 한국문화’와 부인 金鳳榮(사회58-62)동문과 함께 가족생활사를 한 권에 정리한 사진집 ‘배움의 길, 기록을 따라가다’가 지난해 12월에 발간됐다.

공 연

■ 白秉東 작품전

－ 5월 18일 예술의 전당



모교 작곡과 白秉東(작곡55-61)명예교수(사진)가 5월 1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人聲에 관한 각서’를 주제로 작곡 50년의 궤적을 선보인다.

白동문은 그동안 현악앙상블 작품전(1996년), 관현악 작품전(2001년), 피아노 작품전(2006년) 등 5년 간격으로 작품을 정리해 연주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성악 작품을 모아

음악적 교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소프라노 鄭꽃님 독창회

－ 5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수원대 겸임교수인 소프라노 鄭꽃님(성악89-93)동문(사진)이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오페라, 오페렛타 그리고 뮤지컬-세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독창회를 개최한다.

미국 메릴랜드주립대에서 성악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鄭동문은 이날 푸치니, 비제, 바일, 번스타인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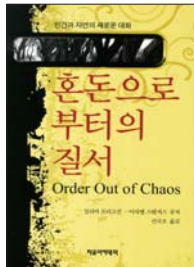
의 모습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연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가르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연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야 할 생존과 상생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경이로운 자연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삶의 진리와 자기계발의 교훈을 통찰력 있게 들려주고 있다.

또 성공의 세 가지 원동력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인품, 협동심을 지닌 인간관계,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실천의지에 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자연에 빗대어 소개한다. (오래刊·값14,000원)

■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 申菊朝 옮김



프리그진과 화학자·과학사학자인 이사벨 스텐저스가 공동 집필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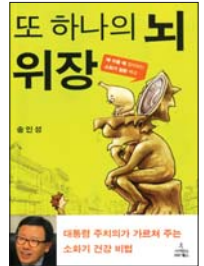
이 책은 과학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 목적과 방법론, 인식론, 그리고 세계관을 다시금 조사하도

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또 결정론적이고 가역적인 고전 과학적 방법으로 가능했던 인간과 자연의 대화가 오늘날에 이르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날 과학의 위태로운 문화적 위치, 특히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본 과학의 현실과의 괴리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과학적 접근방식을 제창하고 있다. (자유아카데미刊·값28,000원)

■ 또 하나의 뇌, 위장

－ 宋仁誠 지음



故 盧武鉉 대통령의 주치의이자 위장 박사로 알려진 모교 내 과학교실 宋仁誠(의학65-71)교수가 소화기 질환 백과 ‘또 하나의 뇌, 위장’의 개정판을 13년 만에 출간했다.

이 책은 소화 불량에서부터 위암, 직장암, 대장암 등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병까지 증상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만성 위염과 소화불량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정확한 의학 상식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위와 장에 관한 상식을 바로잡고, 위장병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과 조기 예방에 대해 명쾌하게 들려준다. (사이언스북스刊·값15,000원)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새겨질 동문님의 건립기금 출연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들어 시작한 장학빌딩이 동문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장학빌딩 내 명예의 전당에 새겨 영구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록할 예정이오니 본인이나 선후배, 동기분들의 납입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락, 오기, 수정 내용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02-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을 게재합니다.

- 게재순서는 ①금액별 — ②성명 가나다순입니다.
- 금액별 구분은 ① 1억 이상(금액별) ② 5천만원 이상 ③ 5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④ 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⑤ 1백만원 미만 등으로 분류합니다.
- 수록내용은 금액별 구분 아래 ①성명 ②단과대학(원) 또는 특별과정(영문) ③입학연도 또는 기수 등 세가지 내용으로 수록합니다.
- 공동명義는 성명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50억원
△임광수(공대48)
◆20억원
△김종섭(문리대66)
◆15억원
△박관호(사대47)
·신명규(사대48)
◆10억원
△강신호(의대46)
△곽영필(공대56)
△구평희(문리대47)
△김상하(문리대45)
△김은중(상대59)
△김정식(공대48)
△김형주(공대46)
△박용성(상대59)
·박용현(의대62)
·박용만(경영대73)

△박호전(상대62)
·김영희(음대62)
△신창재(의대72)
△오동영(공대54)
·김찬숙(치대56)
△윤세영(법대56)
△이준용(상대56)
△정계영(상대61)
△정팔도(AIP1)
·이지행
△홍성대(문리대57)
◆5억원
△김주진(법대54)
△조기호(사대54)
·이영자(사대56)
◆3억70만원
△정석규(공대48)
◆3억30만원

△허남각(상대56)
◆3억원
△김병순(AMP4)
·이지호(의대77)
△이길여(의대51)
△조필제(공대46)
◆2억원
△남정현(공대57)
△손경식(법대57)
△이종기(상대69)
△이준형(공대48)
△장용택(약대55)
△장학순(공대46)
◆1억7천2백20만원
△김도창(법대43)
·목촌5부자
◆1억4천2백90만원
△화학과동창회

◆1억4천만원
△홍예표(치대65)
·김영숙
◆1억3천5백만원
△장병덕(사대53)
◆1억2천만원
△엄병윤(문리대60)
◆1억1천6백50만원
△수학과동창회
◆1억1천1백20만원
△미대동창회
◆1억원
△유석홍(상대61)
·박영희(음대66)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황남주(자연대87)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김해동(문리대69)
△박영혜(문리대61)
△양광민(공대61)

△윤여두(농대67)
△이종철(AIP41)
△최석원(법대52)
◆1백만원 미만
△김동찬(ACAD18)

△박상홍(의대64)
△황영선(법대55)
<2011년 3월 25일
부터 4월 22일까지 출
연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1년 3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1. 3. 4~4. 14)·일반(2011. 3. 3~4. 14)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호성 법대83
△김갑주 AMFR3 △김관영 行院92
△김대하 공대70 △김동현 의대82
△김병철 HPM20 △김서령 사대78
△김성태 농대64 △김시한 농대80
△김천곤 공대76 △김충배 치대72
△박남식 SGS2 △박동혁 공대79
△박순직 농대63 △박영순 ACAD43
△박영진 AMPP1 △성낙헌 공대67
△손병두 상대60 △안병만 법대60
△인혜준 생활77 △양준호 ALP11
△양현아 사회84 △윤석열 공대73
△윤옥경 大院75 △이경국 농대78
△이매리 생활84 △이병재 經院69
△이성범 법대70 △이현락 상대62
△임정기 의대68 △임주환 공대68
△주미희 AIP26 △최은규 사대78
△최재형 법대75 △최향순 공대65

(일반) △강길건 공대63
△강대중 사대90 △강배임 생활79
△고재승 치대60 △고재하 AIP14
△구본식 AIP24 △김강정 AMP48
△김경미 농대84 △김도연 상대64
△김도형 사회91 △김봉현 인문79
△김부식 공대97 △김석환 수의97
△김성민 법대55 △김옥진 수의86
△김용갑 법대87 △김용일 공대82
△김용태 농대84 △김우성 사회98
△김의창 음대62 △김인수 사대53
△김인한 공대84 △김재국 공대00
△김재현 약대06 △김정아 생활02
△김종현 상대55 △김지영 약대99
△김태현 사회04 △김형석 경영86
△김혜정 인문82 △김흥렬 공대69
△남윤재 경영85 △명대광 공대99
△문경섭 자연86 △문동준 농대70
△박기안 문리65 △박미정 자연05
△박상훈 법대80 △박성찬 농대93
△박수찬 농대84 △박영광 ACPM2
△박영빈 AMP69 △박용환 문리62
△박찬도 사대58 △박태종 법대65
△배봉현 자연88 △배운경 사대04
△서고운 법대00 △서재현 자연01
△서정암 공대82 △서정일 치대99
△설동욱 상대62 △성유석 공대99
△성윤수 미대02 △송정근 공대76
△송준석 大院94 △송태호 문리65
△신석민 자연81 △신중대 법대65
△신지수 공대45 △신해중 법대81
△안경숙 사대74 △안광용 공대71
△양성진 공대95 △오행연 경영04
△유미경 농대08 △유제하 공대78
△유종도 사대83 △유화석 경영72
△윤병재 의대93 △윤석환 자연04

△윤재근 자연84 △윤지현 농대84
△윤한철 농대74 △이동호 ASP6
△이만용 상대55 △이석구 공대79
△이성민 AMP65 △이용구 공대82
△이우성 공대90 △이유경 수의90
△이은경 약대84 △이재구 AFB10
△이재준 環院88 △이정택 법대82
△이주홍 사회88 △이준하 공대83
△이창환 자연85 △이태규 의대82
△이회국 공대70 △임병철 SGS21
△장기룡 경영77 △장지인 大院79
△장찬수 사대04 △정동홍 공대70
△정말순 인문80 △정슬람 공대88
△정시영 법대60 △정윤선 의대02
△정재훈 법대90 △정종철 공대72
△정주영 농대87 △정창석 사대73
△정철우 사회84 △정혜신 음대92
△조상휘 공대80 △조정구 자연08
△조정휘 사대60 △조철희 농대70
△조현호 음대05 △조희래 법대61
△주섭일 문리57 △차영환 사대74
△천정일 경영03 △최미혜 간호86
△최병두 농대87 △최영기 사대77
△최창환 공대91 △허정명 농대77
△한성섭 공대68 △한호동 공대52
△허 명 농대78 △허정재 공대71
△현철주 미대74 △홍상현 공대02
△홍석의 자연83 △홍성태 치대00
△홍전화 ACPM7 △황민재 공대83

이 사

◆인문대 △강정일71 △배성효84
△임운봉64 △정제문72
◆사회대 △김동선76 △박희영80
△임 철75 △전홍찬79 △조영일77
△조현대73 △최상규80 △홍석규75
◆자연대 △금종해76 △김 윤68
△장대연74
◆간호대 △성송현74
◆경영대 △구자일86 △기준능80
△서정희78 △오정구74 △이동호77
△이윤호73 △이호선75
◆공대 △강의철73 △권익현69
△김경배68 △김광욱62 △김덕우81
△김명석74 △김상훈80 △김성환66
△김신원64 △김영길60 △김원배55
△김진근71 △김학제65 △남용민71
△문석형50 △문희성57 △박용준52
△박준장47 △박창용66 △박태원49
△박현렬67 △박홍준71 △배기은57
△변영삼77 △변응빈66 △서일홍73
△선석문68 △선우중호59 △성기초51
△손태원72 △신윤승74 △안재휴52
△오정일64 △유승빈63 △윤석구53
△이명호53 △이봉주67 △이봉환68
△이성규58 △이원도59 △이원세71
△이재형76 △이정일61 △이종남73
△이주선64 △이중성61 △이창복56

△이청룡61 △이태동64 △임 용79
△전상백53 △정익주68 △조택호61
△주기태69 △최상오63 △최영식47
△최홍영69 △최효범77 △한관수73
△허옥렬70 △홍호식69 △황종구56
◆농대 △권오준65 △김상도69
△김양재78 △김영섭65 △김정목59
△김훈동63 △나찬희73 △박기수71
△박영문71 △박창용65 △부경생60
△신동수55 △오봉국48 △오승관77
△유병서59 △유성근63 △유장열68
△윤동원79 △윤종철83 △이규승67
△이연숙65 △이영권80 △이원덕80
△이윤호68 △이혜근67 △조선중84
△최진규72 △허길행65
◆문리대 △강승림62 △권오득63
△김규상57 △김병익57 △김용범60
△김용표68 △김종하53 △김춘석69
△남기민69 △남태철65 △노재봉53
△류종택56 △민영기57 △박 실58
△박용길66 △박용안57 △박하진67
△박희준65 △석준형67 △양이훈65
△이영래60 △이인재64 △이정남51
△인태오57 △장부일69 △정기호70
△정연국64 △전상덕71 △최정도62
△한태길69 △홍치모52 △황인광63
◆미대 △손대홍79
◆법대 △강병섭68 △강석훈82
△경우근67 △고현철65 △구본민77
△권광중61 △권연상58 △김선옥63
△김수철71 △김영우56 △김윤성76
△김인겸82 △김창복51 △김태조54
△김형선57 △나대진67 △명노승65
△문효남74 △박 만70 △박기태76
△박동완64 △박윤훈55 △박정규57
△박철근55 △배용재74 △변 욱57
△서경석67 △서승일67 △성백현78
△송진훈59 △신성철65 △신인식74
△안원모73 △안종운51 △양영준72
△우의형66 △윤보옥66 △윤준원67
△이동특59 △이민찬55 △이선우62
△이세훈55 △이수영74 △이영기71
△이영준57 △이원호61 △이인표54
△이재성69 △이재원77 △이재창56
△이재철70 △이정락58 △이종상54
△이창복74 △이흥구53 △임 경78
△임태우59 △장부웅59 △전 광63
△정구영57 △정은구58 △최광률54
△최병구67 △최석원52 △최세관54
△최신석59 △한광수65 △황영선55
◆사대 △강경돈70 △강봉근67
△고영신73 △김경애74 △김남조47
△김상구60 △김수형61 △김영삼73
△김영진51 △김재호53 △김종원61
△김충언58 △민흥기59 △박강민63
△박화영64 △백승권53 △소현영70
△안승룡75 △오윤용60 △왕문용66
△이성목67 △이순권61 △인병식61
△전성택54 △정용길77 △조광순74

△최기숙65 △최동환72 △최준명60
△하상기74 △황승기69
◆상대 △강승구65 △구선희56
△구영보69 △김기중57 △김종호54
△김철영70 △김형만52 △나김웅61
△남정우60 △노인환54 △민병관70
△박순일69 △박해룡58 △서정도66
△서주성44 △손희균46 △송인덕62
△심재열63 △유영일53 △이군재48
△이봉서55 △이승웅60 △이호유54
△장덕신71 △전문준64 △전창수57
△정태웅67 △차태균71 △최부완54
△최종인61 △황동규63
◆생활대 △고영숙70 △박복순70
△여의주82 △정현희72
◆수의대 △김계방61 △김윤수74
△박희춘66
◆약대 △김 유60 △김길수60
△김명수71 △김상수66 △박시우69
△배영일60 △심규장70 △오성환60
△오응준58 △윤웅찬68 △조영준69
△지현석56 △최명식64 △최진곤77
◆음대 △김봉임55 △민미란73
△신수정59 △신정혜77 △이명희68
△이재숙59 △허주화73
◆의대 △강일태74 △고건성67
△고원순68 △김근식53 △김광희55
△김근우61 △김병수54 △김승욱50
△김영근43 △김종숙77 △김현우64
△김형주55 △김환규78 △박성태58
△박주배68 △박호진72 △선우대환71
△심달섭45 △양승열51 △이명철67
△이수일69 △이수현56 △임현술71
△정규병65 △정영덕70 △정유조85
△조근원43 △최규완55
◆치대 △김 현67 △김기현56
△김봉호56 △김정자59 △김지호59
△김체종68 △김홍식59 △박상근66
△박찬유65 △박창자62 △배현성64
△변기정65 △부삼환58 △유재석70
△이병우76 △이진근63 △이한무65
△임순모70 △조성복55 △한성훈60
◆대학원 △권혁길78 △김석웅81
△문형근79 △박성호95 △양일석73
△윤용훈97
◆경대원 △김호봉68 △조현국73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박원길65 △박종안72
◆사대원 △송정호66 △정경식63
◆신대원 △김태문71 △유일상72
△황영일70
◆행대원 △문희갑66 △양석호67
△유금록78 △장준규65 △정영섭66
△허남식78
◆한대원 △권 완76 △박상락84
◆AMP △곽상엽34 △권영선3
△김득식57 △남중철48 △박석희52
△박순일13 △성영창26 △차문현67
△전용택31

◆AIP △김동하29 △김후근17
△박몽식16 △위재근27 △이석준27
△이성남29 △정창현20 △조성환21
◆ACAD △가점노39 △배윤도54
△송봉식52 △이상영40 △전 홍48
△진강현20
◆SGS △손성오12
◆APC △이용배5 △함춘조2
◆HPM △김 웅6 △김광태2
△류희근4 △박천표11 △오국진5
△이정희12 △이태수6 △장성호6
△최선희17
◆AMPP △류귀식7 △이귀복5
◆AIC △장낙진13
◆AMPFRI △최창혁4
◆ACPM △박태영2 △이영수3
△정원배3
◆FIP △이재병1
◆GLP △노윤호12 △박옥영14
△이흥순12
◆ALP △부봉훈2 △조강언6
◆SPARC △노창호10 △이의시9
△전용갑14 △황용규15

일 반

◆인문대 △강기훈90 △강남규84
△강상진83 △강지연03 △고동호79
△김 영88 △김동국83 △김선형84
△김영민96 △김재열91 △김정원02
△김헌태82 △박승희83 △변우식77
△석제법81 △신남경87 △오성민97
△오희은05 △우현아02 △원종명99
△이건협86 △이성영82 △이영인77
△이용운00 △이준삼65 △이차훈83
△임인호84 △임채민77 △전상욱00
△조용일77 △채려목04 △최경락94
△허기원98 △홍성범87
◆사회대 △곽귀봉04 △김기령75
△김대규07 △김민환79 △김보민96
△김봉준00 △김제림02 △김준범84
△김혁래98 △도종운97 △박수진04
△박순일00 △박정호83 △박종철90
△박주태65 △방진욱91 △배세환96
△백두현82 △변동희73 △손신명78
△손영수87 △송성욱87 △송치영81
△송호상74 △안재완86 △오기원97
△오영환82 △유재상04 △은기수81
△이경호75 △이시은02 △이창수85
△임재금94 △전상현91 △정지용96
△조용홍76 △주순식73 △최재석02
△최종완00 △최형근69 △한낙경02
△홍민영96
◆자연대 △강 형06 △김대환02
△김승모86 △김용근74 △김윤호02
△김주환84 △김태원93 △김태윤05
△김태훈03 △김훈민01 △박유나96
△박혜령00 △서흥원88 △오은정82
△유희원03 △이길영00 △이명웅77

△이병철02 △이상규05 △이슬기친04
△이원석05 △이유문80 △이은진08
△이은혜05 △이찬서82 △이충렬00
△이호선96 △임태순79 △전희진02
△정민경00 △정용준01 △조동원73
△조영길74 △최규성81 △추성엽75
△현민아02 △홍한움04 △황열순86
◆간호대 △권오겸56 △김기자56
△김기희65 △김용범06 △김희준00
△박문희59 △박양자60 △박현자63
△윤미여76 △황은성03
◆경영대 △강태웅79 △고두형01
△고희라99 △김기훈02 △김대혁81
△김두봉86 △김성민00 △김성민02
△김용일93 △김형태81 △노진만83
△박추선86 △배웅두02 △변은장90
△변창우86 △성기만84 △송우현99
△오진환77 △이대건03 △이선주73
△이철주81 △정준희89 △조현택83
△최장묵82 △한대성00 △허두석93
◆공대 △강영택63 △강은구97
△고석렬52 △고순민98 △고희승07
△곽두영05 △곽삼진52 △권귀석92
△권기정67 △권봉일69 △권성주03
△김경석98 △김경원83 △김광은63
△김규남47 △김대성00 △김병제52
△김병호78 △김병훈98 △김삼문06
△김상수66 △김서희03 △김석철62
△김성권97 △김세중05 △김수웅60
△김순민66 △김영권01 △김영석77
△김영신89 △김윤제62 △김인달70
△김인송05 △김재업87 △김재용07
△김정우56 △김정인94 △김종민68
△김주영55 △김주하01 △김진일71
△김채식54 △김철순53 △김철호72
△김태녕86 △김해전52 △김현동06
△김현태99 △김홍훈53 △김흥기65
△남광문61 △남궁석52 △남원창99
△남지연02 △노성준06 △리종민05
△류무열77 △문 광70 △문동민57
△문준영06 △문현곤05 △민웅기91
△민철기56 △박경호73 △박노열06
△박두곤53 △박명준53 △박민서79
△박민환98 △박병선03 △박영규58
△박용기71 △박용성95 △박용승54
△박이관58 △박장영58 △박정주78
△박종인97 △박준수00 △박한샘06

△박현철85 △박희규54 △방종식02
△배성준99 △배성환02 △배준일98
△백사익40 △백상진94 △백용현48
△백효석62 △서민우00 △서정욱53
△서정훈97 △성문웅61 △성호웅03
△손승래54 △손지호02 △손택민82
△송기선03 △송영수01 △신동엽00
△신정철67 △신현택48 △심윤식04
△심재환53 △심풍수76 △안귀용01
△안석기03 △안재식03 △안정기03
△안준영52 △양정훈02 △염규섭56
△염유신79 △오성묵04 △오신남60
△오영호72 △우경호78 △우상렬52
△우종민97 △원종호98 △위정섭98
△유병욱97 △유병준06 △유송현99
△유심덕61 △유택노52 △윤도영69
△윤상철51 △윤석용50 △윤성욱02
△윤여남00 △윤준식01 △이강훈52
△이경신82 △이경태53 △이경환63
△이광우60 △이규생57 △이규창51
△이규화68 △이기라02 △이동호65
△이동희85 △이명식49 △이미지03
△이병무61 △이복영55 △이상규98
△이상순52 △이석규57 △이성주98
△이세용82 △이세형81 △이신욱52
△이용욱91 △이용희71 △이원구85
△이인태53 △이장원99 △이정준01
△이정호65 △이제근56 △이주휘03
△이장주97 △이태민85 △이태종77
△이학수03 △이홍근65 △이화기73
△임달연48 △임용택55 △임형준04
△장민석92 △장재호96 △장정우02
△장현봉76 △전병규01 △전석병00
△전유정08 △정명진04 △정민수73
△정석현51 △정영근81 △정을호68
△정종섭84 △조국영92 △조기연01
△조사홍56 △조선용49 △조성구72
△조승우95 △조영선63 △조영호67
△조장하57 △조창현84 △조한모61
△주기만64 △채 철61 △채수장62
△최석주51 △최우중02 △최의원54
△최종민01 △최창희06 △최호병60
△최희정61 △최희철63 △편영준77
△하윤석95 △한건우55 △한록희78
△한상흠85 △한용희06 △한현철05
△홍석환98 △홍성범56 △홍성우03
△황이령05 △황인호56

◆농대 △강경원52 △강신표55
△강인묵54 △강희완64 △공대우03
△공민영05 △금방용85 △김두만52
△김무수89 △김봉규82 △김봉수50
△김삼식53 △김석동72 △김영길53
△김정기56 △김종원57 △김종천53
△김종철86 △김진수70 △김진웅60
△김학기65 △김한태83 △김현주03
△남구환60 △남상운80 △노재흥56
△류충렬74 △민선홍58 △박경석52
△박경호84 △박숙구48 △박정명95
△박정수61 △박정윤55 △박종민87
△박찬운91 △박한수82 △박홍묵56
△반성환50 △변양석59 △변영숙70
△서정겸67 △성우경50 △송기덕55
△송삼석53 △신언근54 △신현우01
△심삼태02 △심익구50 △양찬웅63
△염태영80 △오무영55 △오하영56
△오희정57 △우무일64 △유광일66
△유근학55 △유영준59 △유중철57
△윤동면65 △윤봉규91 △윤용건52
△윤종선84 △이계홍56 △이덕림58
△이도전55 △이두철81 △이두환75
△이명열78 △이무영80 △이봉대74
△이상욱56 △이상화74 △이수봉57
△이수욱55 △이시규73 △이원식53
△이인형56 △이재홍97 △이종희86
△이창구66 △이태영54 △이택구55
△이홍석52 △임성빈57 △장 용62
△장길완82 △장세종66 △전성익55
△전우방55 △정승모50 △정승우02
△정연석48 △정용복51 △정진국68
△정태삼08 △정해영66 △조규택86
△조기상90 △조성진48 △조장환53
△조준기54 △차영준51 △최동열50
△최성환62 △최영대95 △하맹중58
△하현팔68 △한광희55 △한기학52
△한석현52 △한성식58 △한정섭88
△한해룡55 △현재선44 △홍순흥58
△황병순04 △황용진56 △황인엽74
◆문리대 △권순식65 △권태승55
△기우탁57 △김규완57 △김기근69
△김담구58 △김상묵61 △김석산58
△김선리64 △김영성62 △김영식64
△김용성46 △김유석55 △김정호55
△김종엽61 △김종휘62 △김중하57
△김현권71 △김형련66 △김홍철53

△남기흥67 △민홍식55 △박관운56
△박금자66 △박옥줄48 △박종민54
△방재환66 △백영근55 △변광수65
△서군강61 △서정욱60 △송권용58
△송하영58 △신섭중52 △신영균47
△심기철61 △심사수54 △안광식49
△안석주61 △양은승47 △오권태56
△유춘재61 △유희근64 △윤병석52
△윤석구61 △이 강56 △이강조56
△이광열71 △이광웅59 △이근남68
△이도일65 △이범주64 △이상열71
△이상택61 △이양길60 △이영훈65
△이용길62 △이재룡50 △이재술57
△이정란59 △이정숙53 △이정숙57
△이종인54 △이지영67 △이진국71
△이한국51 △임홍빈58 △정관철59
△정국록71 △정기인60 △정봉택50
△조 흥66 △조원홍71 △차호인61
△최 흥66 △최규봉53 △최병석69
△최연대53 △최용욱52 △한박무66
△허 문67 △현승일61 △홍경화54
△황중철67
◆미대 △김민지01 △김상진00
△김익수58 △김학두51 △박경희03
△박윤정06 △박정기64 △박종규69
△손원잡65 △신현경79 △임상진54
△장 훈99 △장혜진01 △전경미02
△최경주04 △함영희77 △현숙자56
△홍순무54 △황인혜65
◆법대 △강병연57 △강승준85
△강형준54 △고왕석61 △고재화62
△곽희준58 △김 철83 △김 훈85
△김광주62 △김근수80 △김근조60
△김기형50 △김남식57 △김득환79
△김민정03 △김봉환61 △김복지48
△김상태66 △김선중70 △김성룡60
△김소연04 △김영세62 △김용대79
△김용환52 △김응완55 △김인묵73
△김재규57 △김재기68 △김정기75
△김정유84 △김정일97 △김정중91
△김종환68 △김주일58 △김주훈60
△김중성81 △김황식67 △김희수80
△노용희48 △도정환83 △라종훈64
△문진구01 △민병권83 △박병규55
△박병연67 △박장우66 △박태호67
△박해봉83 △반성우53 △방영민78
△백 린59 △백영철68 △서영덕57

△석광세59 △손기식68 △손승우02
△송기영69 △송세빈81 △송재현60
△심한준59 △안경수99 △안기영36
△안길용65 △안범일61 △안병익88
△오장희56 △오정돈79 △윤서성62
△이 흥62 △이강명64 △이교선55
△이민재72 △이상철52 △이영의59
△이용규88 △이용범58 △이원기81
△이원진05 △이재성78 △이주성58
△이태희58 △이필관90 △이한춘53
△이해진86 △이희정94 △임안식73
△장경미99 △전태환84 △정성문83
△정세욱56 △정용달81 △정지태58
△정현수75 △정혜리03 △조봉균58
△조성일61 △조영묵02 △조주현95
△차철순70 △채승우88 △최경자01
△최병남64 △최석원05 △최세윤01
△최춘기57 △한경수72 △허승태73
△홍진영00 △황 철62 △황선표59
△황성일56
◆사대 △고두현72 △고무송65
△고웅섭54 △권 승76 △권광욱54
△권오룡56 △권형준69 △김경자63
△김관섭79 △김대웅00 △김문수71
△김병국56 △김봉호68 △김상현66
△김성식57 △김영철64 △김용일59
△김인숙58 △김재성79 △김점술82
△김종우54 △김주경55 △김준호50
△김중호60 △김혜우64 △나동진66
△남기종54 △민정욱41 △박대영80
△박문수74 △박병윤65 △박상필76
△박인식48 △박정남57 △박주해50
△박찬주02 △배영철79 △박영묘98
△변희준58 △설동균68 △송성환64
△신상인03 △신승기83 △안광화63
△안석로53 △안영숙52 △안정훈99
△안희익54 △염도균59 △오해균77
△우인섭47 △유기동65 △유성렬64
△유희임68 △윤석오64 △윤희태99
△이규식58 △이기종56 △이달덕70
△이득우74 △이만형62 △이병선51
△이상철59 △이석주60 △이성규57
△이승우61 △이승학87 △이영윤58
△이용덕71 △이윤희05 △이재근43
△이재민79 △이재선01 △이재원70
△이종명54 △이주목97 △이쥬리02
△이체규66 △이흥종54 △임상순60

△장대운54 △장준호56 △전기채51
△전수남59 △정복래54 △정부길59
△정상호67 △정영호52 △정의상55
△조정희58 △조주현04 △조철원55
△조혜승05 △조희식54 △주윤수66
△최영대80 △최원규58 △최정숙44
△최정현64 △최희주52 △한병우92
△한정교61 △허인철03 △현성준78
△현영희57 △홍정희55 △황광수56
△황적륜54
◆상대 △강태석51 △고을상51
△김규석55 △김봉한44 △김상경61
△김승경55 △김영섭66 △김재진54
△김종배51 △김주형74 △김주호50
△김형주51 △김홍배63 △민병훈56
△박광규56 △박광철56 △박대룡50
△박순태56 △박인석48 △박종한49
△박창규56 △배선홍49 △배종섭58
△백기덕58 △백지근49 △변형윤45
△서돈윤58 △서병태63 △성기호59
△손경수56 △손흥근54 △신기범61
△신문철52 △신중현56 △심남진49
△양해성68 △엄치섭53 △오상봉70
△우일균50 △위봉락62 △유방창61
△윤록현59 △이 연59 △이건재52
△이경모52 △이계식56 △이계훈51
△이길호55 △이명기59 △이성희70
△이연수64 △이영세44 △이영호46
△이은방57 △이종수64 △인수환54
△장기남61 △전장원56 △정경완55
△정종찬71 △조동화55 △조동후51
△진장갑54 △차병권44 △최병완57
△최처락54 △한영국50 △허 길52
△허재원56
◆생활대 △김경숙82 △김경애66
△김남미73 △김동우99 △김민정05
△김성희69 △박문학60 △박미현06
△박주희85 △백선자64 △서병숙55
△신은철73 △안은정03 △육완진57
△이진경02 △임정빈61 △조정애57
△조혜자60 △최규순61 △홍산윤57
◆수의대 △고성옥57 △고의식56
△권순호53 △김삼수74 △김재하52
△김정훈62 △김준삼55 △김협수81
△박기환49 △박만규50 △박양기56
△박영혜82 △박유순63 △백영환56
△손병훈54 △송남훈64 △신래섭56

△어중원65 △오남진67 △이강훈58
△이상우65 △이영주83 △이형우51
△이호선92 △이호원66 △정승기53
△정영시54 △정지영84 △정정현59
△제병천04 △조종호49 △최윤주00
△최찬영66 △황병주57
◆약대 △감규상56 △강석훈04
△고건일60 △권창호47 △김 식68
△김귀숙79 △김규형53 △김기현52
△김만극47 △김양오60 △김영길61
△김영식74 △김원선54 △김종윤53
△김진형88 △김현옥57 △김혜자55
△내명철69 △박경래57 △박기숙86
△박천현06 △박태선04 △서남현59
△서동화69 △서성수53 △송나래05
△송순자60 △심은숙51 △유도봉66
△이계준64 △이상구58 △이성태60
△이원재53 △이재은55 △이재호72
△이홍래52 △장봉수61 △정근배61
△정동원53 △정왕윤54 △정현수51
△조중현68 △지상구54 △채계화51
△최경희54 △홍순태67 △홍승철53
◆음대 △고윤화98 △김상원87
△김순옥73 △김규경05 △문혜신94
△박성진02 △박정임73 △서수민97
△성양자60 △송복자84 △송영옥80
△신혜영93 △안성준65 △안형일53
△오미혜71 △오주희04 △윤완숙62
△이은화06 △장창환58 △정혜연02
△한애화84 △허미경81 △황수아98
△황응준87
◆의대 △강정후76 △고원섭84
△권영길47 △김갑환53 △김득구50
△김병철85 △김소연74 △김용식71
△김용진69 △김우영43 △김원희56
△김종박59 △김종원96 △김진영50
△김창기89 △김희정07 △도병욱83
△박성근89 △박순일51 △서대현81
△서정후50 △서현이04 △송인배73
△신용찬54 △양세원78 △오경균63
△왕영종54 △원세재46 △유정주05
△유종근71 △이명호80 △이봉화75
△이성희86 △이수동68 △이의돈61
△이철현67 △이충원76 △이해영68
△정진영05 △정진우45 △정태산53
△조일균55 △최병휘73 △최희옥51
△한기준52 △현응설45 △홍기석68

◆치대 △강신구65 △강인희77
△강정규58 △강호경53 △김경남72
△김교식72 △김명국54 △김명효75
△김문기66 △김선일58 △김성근66
△김성범04 △김세일77 △김시영00
△김인수77 △김정기57 △김진홍78
△김효순68 △박종옥80 △박주태70
△박태선54 △백지완56 △성소래99
△송병욱65 △송채현75 △신철수71
△양무도70 △염경철61 △염성환72
△오순이88 △오인식56 △유기준86
△윤훈용53 △이기훈70 △이상대70
△이상표77 △이용덕81 △이원철63
△이점식61 △이택훈71 △임성균59
△임형순63 △전영섭60 △정관서79
△최승은63 △한성희92 △홍성호95
△홍총옥55
◆대학원 △강우식83 △강혜영91
△고진석99 △김동선59 △김상복98
△김현택82 △박용종82 △송승욱76
△양기주95 △윤경섭89 △윤제범82
△이강현93 △이정도67 △정성렬85
△조석준57 △진선주62 △최연희83
◆경대원 △강희경71 △김일란69
△장만기66 △조정희69 △조형규67
◆교대원 △이상길70 △황현익65
◆보대원 △강혜경80 △구근희67
△김귀향79 △김상욱87 △김주희72
△김한상84 △박상욱04 △박주홍86
△신금호72 △이수형01 △이용성73
△이태희87 △한서경65
◆사대원 △김영준70
◆신대원 △윤임술69 △한형수76
◆행대원 △강훈철80 △남광수79
△박광무87 △박찬도64 △배용태83
△서일수67 △설균태88 △심윤수81
△엄현희82 △이기섭77 △정병철77
△최대용85
◆현대원 △강덕원85 △신언교87
△양언모82 △이 혁07 △이종현02
△허 완74 △황지현76
◆AMP △강동한68 △강은채44
△고순동66 △고윤재20 △구종태45
△권병식28 △금한태68 △김관수61
△김교철25 △김명호32 △김배호52
△김성환25 △김연수66 △김정규24
△김종길29 △김진섭9 △김홍두53

△남현일32 △박 석25 △박성규15
△박성호63 △박영근17 △박원규50
△박종구21 △박학경47 △방상우31
△변정수40 △손재환48 △송문호38
△신상복56 △안시환20 △오연수4
△오형근48 △유재열35 △유진석32
△윤성민13 △윤영희65 △이기호16
△이동훈35 △이문영67 △이성길34
△이용덕68 △이원준69 △이재민63
△이제홍65 △이진선36 △이찬복67
△이춘호46 △이태섭5 △장명웅40
△장영섭14 △정시화60 △정형택6
△조봉구19 △조석제62 △조용연21
△최동만66 △최병환68 △최용묵53
△최인호12 △최종원16 △황민하67
◆AIP △고희수25 △권영익19
△김경숙20 △김계동36 △김장근15
△김재후20 △김정영21 △김주근3
△김진수29 △문동인40 △박노택44
△박인서12 △박종익26 △서영복19
△송대진22 △심영복38 △유길상9
△이문기16 △이세광43 △이형세37
△이희용44 △임윤철42 △장희전20
△정성훈44 △정연구30 △정정호34
△정주용37 △최용익43 △최평욱7
△한상규21 △허 열41
◆ACAD △김광수68 △김덕영18
△김동찬18 △김성현40 △김수봉57
△김영준31 △김인종54 △김행복27
△남종우30 △박권섭56 △박남신70
△박찬국54 △박해도66 △오길수69
△유병국30 △이강우69 △이근일40
△이길행70 △이상철33 △이영희57
△이은흥48 △전병순42 △전해성33
△진인권28 △채명기66 △최덕률68
△최병길11 △최봉인31 △최상철36
◆ABP △강성진27 △김현식20
△박만규34 △박인규10 △배영운31
△송윤진20 △심상렬23 △양병기30
△오숙희27 △이상락4 △조상익2
△조용호34 △황용창11
◆SGS △김용환16 △민상금1
△안영대22 △전우대2 △정해순3
◆APC △이영세4 △이우용3
◆HPM △권강주3 △권차남5
△김병민25 △김병수9 △김성민12
△김종대16 △김황준5 △소정룡20

△양동근12 △임일규1 △전명덕1
△정호용8 △최종환10 △최진호19
△한훈섭10 △황경수23
◆AMPP △고영수10 △김상욱7
△류황범7 △방석관1 △서영신10
△이종만5 △최익현2
◆AIC △김동현25 △김석영25
△김형준24 △민홍식23 △서철모8
△윤영기2 △최정길6 △한기식27
△한상기5
◆AFB △김경일6 △김임수9
△김재명7 △백귀열8 △손 문10
△송흥수10 △우창식7 △정일진10
◆AMPFRI △강대호22 △권 순4
△김민식27 △김영기27 △김일동8
△배성현26 △송병우13 △양동수6
△이공범27 △이재근27 △이종무11
△이춘희9 △정지택3 △조봉기1
△전병기19
◆ACMP △김기식6 △김유진3
△김태용2 △민평기4 △심형구4
△유정환7 △정종균2 △조종수1
△최정구3 △한남희5
◆FIP △김성하6
◆GLP △권덕수15 △김병두12
△김영도15 △김형중17 △박영식18
△서승욱19 △송병원20 △심상운14
△양기해14 △윤상기21 △윤진희18
△이용문17 △이준형11 △이창묵7
△정동훈20 △정학섭15 △차화철12
△최윤성22
◆ALP △곽상욱12 △김기식5
△김평협10 △김홍주4 △손용근6
△이성현9 △정기환6
◆SPARC △김 건8 △김태근6
△최광중6
◆ASP △박도규14 △박상호16
△박정원17 △배영훈17 △안준근9
△이재덕4 △한덕수9
◆IFP △안흥섭1

3 월 계 : 71,690,000원
평생회비 : 53,000,000원
입 회 비 : 30,000원
총 계 : 431,370,000원